

수원 지역 어린이문학가 안준식의 삶과 문학*

박 태 일**

차 례

- | | |
|-----------------|---------------------------------------|
| 1. 수원과 어린이문학 | 2) 인쇄출판과 『별나라』 |
| 2. 작가 혼동과 수원 귀속 | 3) 어린이문학가의 층위 들 |
| 3. 삶의 동력 셋 | 4. 수원 지역문학 연구를 향하여
(붙임) 안준식 작품 죽보기 |
| 1) 소년 활동의 전개 | |

국문초록

운파(雲波) 또는 구름결을 필명으로 썼던 안준식(安俊植)(1901-1951)은 경기도 수원이 낳은 근대 첫 어린이문학인이다. 이 글은 잊혔던 그의 삶을 재구성한 것이다. 첫째, 안준식은 오랫동안 영천 지역 어린이문학가 안평원과 같은 사람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안준식은 수원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인쇄 노동자로 일하며 배재고보를 만학도로 다니다 중퇴했다. 1925년 무렵부터 인쇄소 동아사를, 1926년에 별나라사

* 본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의 2018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를 세워 나라잃은시대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을 대표하는 잡지 『별나라』를 1935년까지 10년 동안 펴냈다. 수원 지연과 배재고보 학연을 중심 고리로 삼아 활동했던 그는 전쟁기인 1951년 3월 북으로 올라가다 황해도에서 폭격으로 영면했다. 둘째, 안준식의 삶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년 활동가로서 그는 지식인, 유학생 중심의 초기 세대와 달리 1925년 무렵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무산 소년 활동을 내세우며 활동했던 새 세대의 중심 인물이었다. 인쇄출판인으로서 그는 82권을 펴낸 『별나라』 발행에서 우뚝하다. 카프의 어린이문학 기관지 몫을 맡았던 『별나라』는 제국주의 왜로 탄압 속에서 이룬 대표적인 투쟁 매체였다. 어린이문학가로서 그는 이름 높은 동화구연가며 작가로 폭넓은 활동을 벌였다. 이 글로 안준식의 삶과 문학을 향한 첫 걸음을 뗐다. 앞으로 그의 문학이 수원 지역문학 전통으로 되살 뿐 아니라, 근대 어린이문학사에서 마땅한 자리매김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주제어 : 안준식, 운과, 구름결, 『별나라』, 동화구연가, 수원 지역문학, 경기 지역문학, 『문학창조』, 카프 어린이문학

1. 수원과 어린이문학

경기도 수원 지역문학지를 들여다보면 몇몇 명망가가 보인다. 나혜석·박팔양·박승극·홍성원·백도기와 같은 이다.¹⁾ 그들 가운데 나혜석 경우는 일찌감치 기념사업회가 마련되었고 여러 현양 사업을 벌이고 있다. 월북 작가 박승극 경우는 전집이 한 차례 마련되어 세상에 얼굴을 알렸다.²⁾ 그럼에도 아직까지 눈길 바깥에 놓여 있는 이가 적지 않다. 대

1) 『경기 문학지도 1』, 경기문화재단, 2000, 16-44쪽.

2) 박승극문학전집 편집위원회 엮음, 『박승극 문학전집 1 소설』, 학민사, 2001; 『박

표 작가가 안준식·구직회·정청산이다. 정청산은 이즈음 수원박물관이 수원시정연구원에 맡겨 조사를 마무리한 『독립운동가 발굴조사 사업』에서 새로 찾은 광복지사로 이름을 처음 지역에 들냈다.³⁾ 그는 어린이문학을 중심으로 문학 활동과 이념 투쟁을 벌였던 열혈 문학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뒤늦게나마 고향 수원이 그를 품어 주었다. 안준식과 구직회는 수원 지역문학인이라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구직회 경우 글쓴이가 몇 해 앞서 그를 비롯해 여섯 작가가 내놓은 『소년소설육인집』(신소년사, 1932)을 엮어 내면서 그가 수원 지역문학인임을 밝힌 상태다.⁴⁾ 안준식 경우는 아예 수원 지역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을 포함해 수원 지역문학인을 살피노라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곧 우리 근대 어린이문학, 그것도 1920-30년대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의 성장과 발전에 그들이 중요한 몫을 맡았다는 사실이다. 안준식·구직회·정청산에다 박승극까지 더하면 단위 소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많은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인은 내놓은 몇 곳 가운데 하나로 수원이 꼽힌다. 이러한 수원 문학인에다 평택 진위 출신 이동규, 고양 박세영, 은평에서 중요 활동을 했던 송영과 인천 출신 김도인·진우촌까지 더하면 경기도 지역이 우리 현실주의 어린이문학 성장에 끼친 영향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모습은 합천의 이주홍·손풍산을 비롯해 진주 엄홍섭, 마산 권환·강호·이구월, 언양 신고송, 함안 양우정, 밀양

승극 문학전집 2 수필』, 학민사, 2011.

3) 『경기도 독립운동 인물발굴사업-독립운동가 발굴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2018, 142-146쪽.

4) 구직회(具直會 : 1910~?)는 1932년 현재 조선청년총동맹 아래 경기도 수원청년동맹 양감지부를 이끄는 청년 지도자였다. 양감면 동소리에서 '무산 아동'을 위한 밤배움 대화의숙(大化義塾)을 꾸리고 있었다. 그는 주로 『신소년』에서 줄글과 동요, 소년소설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 그의 소년소설 『가마니장』은 계급주의 소년소설의 본보기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박태일, 『1930년대 한국 계급주의 소년소설과 『소년소설육인집』』,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183-220쪽 : 『소년소설육인집』, 도서출판 경진, 2013, 19-62쪽.

박석정, 하동 김병호·강로향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지역의 활발했던 모습과 맞물린다. 1920-30년대 한국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을 지역 잣대로 보자면 경상남도와 경기도 출신 청년 문학인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한 모습과 성과를 일구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활동했던 어린이 연속 매체가 『신소년』과 『별나라』 그리고, 『시와음악』이다.

이들 가운데서 오래도록 중심적이고도 선명한 투쟁을 벌였던 곳이 『별나라』다. 그리고 그 『별나라』의 인쇄·편집·출판·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았던 이가 수원 문학인 안준식(安俊植)이다. 그럼에도 그에 관해서는 이제껏 어린이 문학사회는 물론 수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2000년대부터 『별나라』와 맞물린 갖가지 연구⁵⁾가 있었으나, 떠난 이 안준식과 관련한 개별 연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의

5) 『별나라』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글은 2004년 글쓴이가 내놓았다. 경남·부산 지역 어린이문학의 형성과 전개를 살피기 위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 뒤 류덕제가 『별나라』를 따로 떼어 다루는 본보기를 보였다. 박태일, 『나라잃은시대 아동잡지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37호, 한국문학회, 2004, 149-200쪽; 신현득, 『『신소년』·『별나라』 회고』, 『아동문학평론』 31-2호, 아동문학평론사, 2006, 189-200쪽; 류덕재, 『『별나라』와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의미』, 『국어교육연구』 46집, 국어교육학회, 2010, 305-334쪽; 박영기, 『일제강점기 아동문예지 『별나라』 연구-송영과 입화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33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0, 143-177쪽; 김봉희, 『나라잃은시기, 계급주의 아동극 운동 : 『신소년』과 『별나라』를 중심으로』, 『아동문학평론』 36권 2호, 아동문학평론사, 2011, 48-75쪽; 최명표, 『한국 근대 소년문예운동사』, 도서출판 경진, 2012, 290-292쪽; 이근화, 『『별나라』 소개 문예물 연구 : 1930년대 아동문예물의 이면과 문학적 전략』, 『한국학연구』 제4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229-256쪽; 원종찬, 『1920년대 『별나라』의 위상 : 남북한 주류의 아동문학사 인식 비판』, 『한국아동문학연구』 23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65-104쪽; 손중상, 『박세영의 아동극 연구 : 『별나라』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4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13-48쪽; 류덕재, 『1930년대 계급주의 아동문학론의 전개 양상과 의미』, 『한국아동문학연구』 26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135-172쪽; 『1930년대 계급주의 아동문학론의 전개 양상과 의미』, 『한국아동문학연구』 26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135-172쪽; 정진현, 『1920년대 『별나라』 동요 연구 : 주요 문인 활동과 작품 현황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7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 105-141쪽.

로서는 그가 자지역 문학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까닭에 그랬다 치더라도 어린이 문학사회에서 『별나라』에 두터운 관심을 가졌으면 서도 그와 관련한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뜻밖이다. 일이 이렇게 된 가장 큰 까닭은 안준식과 관련한 실증 정보가 엷었던 데 있을 것이다. 수원으로 보자면 안준식은 지역 근대 첫 어린이문학가다. 게다가 우리 근대 어린이문학 매체 투쟁의 핵심인 『별나라』를 틀어잡고 그 중심 인물로 살다 간 사람이다. 송영과 박세영은 그가 냈던 『별나라』의 편집을 맡았고, 정청산은 별나라사 직원, 박승극은 『별나라』 중요 글쓴이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를 보더라도 수원 지역문학의 발전, 나아가 근대 현실주의 어린이문학 발전에 끼친 그의 이바지는 확연하다.

이 글은 안준식을 다룬 첫 글이다. 안준식과 그의 문학을 우리 근대 어린이문학사에 올려 세우고, 수원 지역문학 전통으로 귀속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논의를 두 매듭으로 이어 나갈 것이다. 첫째, 이제껏 소수나마 알려져 왔던 안준식에 관련한 이해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둘째, 그의 삶을 재구성한다.⁶⁾ 이 글로 말미암아 안준식의 삶과 문학,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근대 수원 지역 어린이문학이 마땅하게 우리 민족문학 전통과 자산으로 넉넉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바란다.

2. 작가 혼동과 수원 귀속

작가 안준식을 개별로 다룬 2차 담론은 이제껏 없었다. 나아가 2010년

6) 이 글은 본디 2018년 12월 17일,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열린 ‘2018 수원학 학술연구 지원사업 연구성과발표회’에서 『수원 지역 어린이문학가 안준식의 삶과 문학』으로 발표했던 것이다. 학회지에 실으면서 원고 분량 제한에 따라 안준식 어린이문학의 성격과 특성을 짚은 3장은 따로 떼어 『수원 지역 어린이문학가 안준식의 삶과 문학 2』로 나누어 실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의 수원 귀속과 삶을 재구성하는 데까지 다룬다.

대 초반까지 그를 올림말로 다룬 사전류 기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그가 이름을 선뎠 곳은 ‘한국 근대 청소년 소설 선집’ 가운데 한 권 『하늘은 맑건만』(2007)에서다. 『아버지와 딸』을 실으면서 작가 소개로 “자세한 이력을 알 수 없다. 본명은 안준식, 호는 평원(平原). 『소년』과 『별나라』에 『물대기』, 『호떡선생』, 『임간학교』 등의 청소년소설을 발표했다.”⁷⁾고 짧게 적었다. 안준식의 필명(호)은 운파(雲波)인데 그것은 다루지도 않았다. 오히려 ‘평원’이라 썼다. 안준식과 안평원을 같은 사람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그 뒤에도 나타난다. 곧 ‘한국아동문학 연구자료총서’를 내면서 안준식과 안평원을 같은 사람으로 보고 그들 작품을 한 자리에 섞어 올렸다.⁸⁾ 그리고 개별 항목은 아니지만, 『별나라』와 박세영의 관계를 다룬 글에서 최명표 또한 잘못을 되풀이했다.⁹⁾

이렇듯 드문 글임에도 그들은 모두 안준식과 안평원을 같은 사람으로 보았다. 그런데 경기도 수원 사람 안준식과 경상북도 영천 사람 안평원은 다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같은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 빌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잘못은 이재철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1978년 『한국현대아동문학사』를 펴내면서 안준식과 안평원을 같은 사람으로 올렸다.¹⁰⁾ 그 뒤부터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된 셈이다. 둘이 전혀 다른 사람임을 글쓴이가 처음 밝힌 때가 2012년이다.¹¹⁾ 그 뒤부터 나온 안준식 관련 기술에서는 두 사람을 나누어 쓰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류덕제다. 그는 안준식에 관해 누구보다 긴 풀이를 하면서 안평원과

7) 최시한·최배은 엮음, 『하늘은 맑건만』, 문학과지성사, 2007, 282쪽.

8) 안평원 작품 『나무꾼의 쉬는 곳』·『설한풍의 밤』·『옥색 ‘호로병’』·『협산을 밟고』를 안준식 작품 『아버지와 딸』과 나란히 놓았다.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연구센터 엮음, 『별나라를 차려간 소녀 3』, 국학자료실, 2012, 540쪽.

9) 최명표, 『한국 근대 소년문예운동사』, 도서출판 경진, 2012, 34-35쪽.

10)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121쪽.

11) 박태일, 『앞에서 든 글』, 1988-189쪽. 그 뒤 영천에서는 새로 찾은 자지역 작가로 그를 다루고 있다.

따로 실었고, 두 사람이 다른 이라는 사실을 되짚었다.¹²⁾ 안준식을 ‘소년 운동가’ ‘아동문학가’로 일컫고 생몰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썼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쪽과 달리 북한에서는 일찌감치 1950년대부터 안준식에 관련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①1901년 12월 13일 경기도 수원군에서 출생. 1916년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인쇄 노동에 종사하였음. 1926년 6월에는 『별나라』사를 창간하고 그의 주필로서 사업하였음. 1927년에는 박세영, 송영과 함께 『별나라』사를 ‘카프’ 아동문학부의 기관지로 개편하고 프로문학 출판물 발간에 정진하였음. 1932년에는 극단 『신건설』 사건으로 일제 감옥에 투옥됨. 1945년 해방 후에는 서울에서 지하 활동을 하다가 1950년 6월 28일 이후에는 문화선전성 직속 국영 서울 제1출판사 부사장으로 공작하였음. 1951년 3월에 북반부로 넘어 오다가 황해도 금천군에서 적의 폭격에 의하여 별세하였음.

-『략력』¹³⁾

②1901년 12월 13일 경기도 수원군에서 출생. 1916년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인쇄 노동에 종사. 1926년 6월에는 『별나라』사를 창간하고 그의 주필로서 사업. 1927년에는 박세영, 송영과 함께 『별나라』사를 ‘카프’ 아동문학부의 기관지로 개편하고 프로문학 출판물 발간에 정진. 1932년에는 극단 『신건설』 사건으로 일제 감옥에 투옥. 1945년 해방 후에는 서울에서 지하 활동. 1951년 3월에 북반부로 넘어 오다가 황해도 금천군에서 적의 폭격에 의하여 별세.

-『략력』¹⁴⁾

12) 류덕제 엮음, 『한국 현대 아동문학 비평 자료집 ① 1900-20년대』, 소명출판, 2016, 1034-1035쪽 :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의 필명』, 『한국 현실주의 아동문학 연구』, 청동거울, 2017, 307-309쪽.
 13) 『별나라』, 아동도서출판사, 1958, 188쪽. 이 책은 조선민주청년출판사에서 1956년에 낸 첫 판을 일부 더해 낸 재판이다. 1957년 연변교육출판사에서 번인본으로 내기도 했다. 세 책 모두 작가 『략력』에서는 달라진 바가 없다.
 14) 『현대조선문학선집(아동문학집) 10』,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187-196쪽. 운파라는 호를 쓴 동명이인이 있다. 농업 지식을 퍼는 일에 나섰던 이다. 본디 이

①과 ②는 세 해를 띄우고 이루어진 기술이다. 그럼에도 속살은 거의 같다. ①을 보다 요령 있고도 짧게 간추린 풀이가 ②다. 그러다 보니 경인년전쟁기 “서울 제1출판사 부사장” 이력이 빠졌다. 그런데 둘의 기술에서 그의 태생과 사망 연대에다 학력에 관해 밝혀 둔 점이 각별하다. 1901년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1916년 보통학교를 졸업했다는 정보는 그의 삶을 가늠하는 데 좋은 참조점이다. 게다가 생몰 연대에서는 나달에다 사망 원인까지 적시했다. 곧 12월 태생이며 1951년 3월 후퇴하다 황해도 금천에서 유엔군 폭격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남북한을 통털어 안준식을 두고 이루어진 가장 꼼꼼한 정보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의심할 바 없다. 왜냐하면 이 두 기술이 실린 책을 펴냈던 시기, 곧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 초기 어린이 문학사회를 이끌었던, 1945년 이전 카프 세대들이야말로 안준식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친교를 맺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별나라』 중심 편집인이었던 송영과 박세영에다 신고송·강호·엄홍섭·박승극·정청산이 현장 문학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송영과 박세영은 월북 작가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요, 초기 북한 어린이 문학사회를 이끈 대표 실세였다. 안준식에 관련한 기록이 처음으로 보이는 ①, 곧 1945년 이전의 북한 사회주의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의 전통 자산을 간추려 널리 알리고자 한¹⁵⁾ 선집 이름을 굳이 그들이 공들여 냈던 잡지 『별나라』를 그대로 끌어와 썼던 일은 우연이 아니다. 별나라사 직원으로 일했던 수원 후배 정청산은 김일성종합대학 당위원장을 거쳐 선집 『별나라』는 물론, 북한 어린이문학 출판물을 내는 핵심 기구 아동도서출판사 주필을 맡고 있었다. 그러니 ①, ② 두 기술을

름 장완호(張琬鎬).

15) ‘프로레타리아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낸 첫 근대 어린이문학사 기술에서 소항목을 갖추어 다룬 유일한 두 사람이 박세영과 송영이다. 그 둘이 지녔던 정통성과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해방 전의 조선 아동문학』, 아동도서출판사, 1956, 30-43쪽.

둘러싼 필진은 안준식과 공사로 깊은 친연성을 지닌 인물. 누구보다 안준식의 가계와 사람됨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이다. 이미 저 세상 사람임에도 생일 날짜까지 적시한 것이 그 점을 잘 말해 준다.¹⁶⁾ 거기다 위원회 소속은 달랐으나 같은 작가동맹 동맹원으로 활발했던 동향 박팔양까지 가까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이끌었을 대표 출판물 둘에 쓰인 안준식 관련 기록은 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쪽에서 안준식을 수원 사람으로 비정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그에 관한 관심이 엷었던 데 있을 터다. 게다가 그나마 볼 수 있는 유일 기록에서 ‘본적’이 서울시로 되어 있었던 까닭이다. 그가 1932년 왜경에 이른바 ‘출판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을 때 만들어진 신문 조서가 그것이다. 거기서 안준식은 직업을 ‘인쇄업 겸 출판업’으로, 본적은 서울 ‘혜화동 89번지 3’으로, 주소지는 ‘혜화동 1-65’번지로 적었다.¹⁷⁾ ‘혜화동 89번지 3’은 안준식의 집 주소다. ‘혜화동 1-65번지’는 『별나라』를 냈던 별나라사 주소지이자 그 인쇄소 동아사 자리다. 왜경은 그의 서울 집 주소지를 ‘본적’으로, 그의 일터 주소를 ‘주소지’로 적은 것이다. 안준식 경우 ‘본적’은 그의 태생지와 다른 거주지를 뜻한

16) 안준식의 『략력』이 실린 『현대조선문학선집(아동문학집) 10』 경우, 18명이 작품을 실었다. 그 가운데 12명은 그 무렵 북한 문학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다. 『략력』 기술을 위해 본인 확인을 거쳤다는 뜻이다. 『략력』에 생년월일까지 적지 않은 이는 리동규·홍구·권환 셋에 그친다. 그 책이 나온 무렵 이미 죽은 이다. 1950년 6월에 죽은 리동규는 1923년 생년만 적었고, 1947년 서울에서 죽은 홍구 경우는 생일은 적지 못하고 1908년 3월까지 적었다. 권환은 월북하지 않고 남한에 머물러 있다가 1954년에 마산에서 영면했다. 죽은 이 가운데 최서해·박고경·안준식은 생년월일까지 다 적었다. 함경북도 성진 출신 최서해 경우 일지감치 1932년 죽은 이로, 널리 알려진 작가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 박고경은 1936년 신병으로 죽었다. 그와 깊은 친교를 맺었던 북한 출신 남궁만·리원우·김우철·안룡만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까닭에 나달까지 적을 수 있었다. 안준식도 비슷한 경우겠다. 북한 쪽 기록을 믿을 수 있는 한 터무니다.

17) 신고송·임화·이찬·안준식과 『별나라』 사원 정청산·박주호가 붙잡혔다. 『출판법위반 급 기타 검거에 관한 건(우리동무 사건)』, 1932. 12. 15.

http://db.history.go.kr/id/had_178_0020

샘이다.¹⁸⁾ 그렇지 않다면 고향 수원에 있었던 ‘본적’을 현재 서울 거주지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인쇄업 겸 출판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거기다 『별나라』라는 연속 간행물을 내고 있었던 그다. 인쇄소·출판사 운영과 검열 과정, 다른 갖가지 법적 이해 충돌이 문제 될 경우가 잦았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1932년에 앞서 일찌감치 본적지를 일터인 서울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오랜 시기 그 둘레에 머물며 각별하게 지내다 월북했던, 카프와 『별나라』 세대 지인들이 앞장 서서 낸 출판물에 실린 기록이 가장 믿을 만하다. 그가 수원 출생임은 의심할 여지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쪽 안준식 기술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두 가지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학력과 탄생 연도 문제다. 북한 쪽 ‘략력’에는 안준식이 1916년 수원의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에서 ‘인쇄 노동’에 들어선 것으로 적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기록으로 보면 배재고보 재학 사실이 보인다. 1924년 5월 ‘전조선야구전’에서 휘문고보와 배재고보가 시합을 벌였는데, 거기서 배재고보 선수로 그가 이름을 올렸다.¹⁹⁾ 1924년 배재고보 재학이 확실하다. 그러다 서울 “야구계에 종사하든 유지 청년들”이 ‘서울야구단’을 만들어 1925년 9월 “배재운동장에서 서울아메리칸과 야구시합을” 벌였다. 그 단원 10명 가운데 외야수 안준식이 들었다.²⁰⁾ 이듬해 1926년에도 “서울구락부 외야수”로 그가 시합에 나섰다.²¹⁾ ‘서울야구단’은 배재고보 출신이 모여 만든 야구단이다. 따라서 안준식은 1924년 하반기에서 1925년 전반기 사이 배재고보를 중퇴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어서 1925년 8월부터 ‘보

18) 수원 출신 정청산은 1931년 6월 이른바 치안유지법으로 붙잡혔을 때는 ‘본적’을 수원으로 적었다. 그러나 1933년 1월 이른바 출판법 위반으로 다시 붙잡혔을 때는 ‘본적’이 ‘경성부’ 곧 서울시로 바뀌었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a_4989_3875

19) 『전조선야구전』, 『중외일보』, 1924. 5. 19.

20) 『새로 조직된 서울야구단 오늘 첫 싸움』, 『매일신보』, 1925. 9. 23.

21) 『4구락부야구연맹전 전기』, 『동아일보』, 1926. 8. 17.

광학교'에서 무보수 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²²⁾ 『별나라』를 내기 앞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듯 안준식이 배재고보에 진학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둘 때, 그와 배재고보 사이에 평생 이어졌던 끈끈한 인연은 이해가 쉽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운영한 별나라사와 『별나라』 ‘동인’에 배재고보 출신 학원이 가장 단단한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기 『별나라』를 힘껏 도운 이²³⁾만 보더라도 인천 출신 진우촌과 최병화가 배재고보 출신이다. 송영은 1917년 배재고보에 입학하여 1919년 중퇴하기 앞서 “배재소년”으로 『새누리』라는 회람 잡지를 만들면서 습작기를 보낸 이다.²⁴⁾ 동인 염근수 또한 배재고보 중퇴생으로 보인다.

초기 동인은 아니지만 별나라사 직원 가운데서도 배재고보 출신이나 배재고보 연고는 큰 고리를 이룬다. 대표되는 이가 『별나라』 중심 편집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박세영이다. 그는 송영과 동기생으로 배재고보 제4회로 졸업했다. 『별나라』가 더 나오지 못하고 왜로 탄압이 극심했던 실국시대 말기에는 모교 배재고보 직원으로 몸을 맡기기도 했다. 그리고 안준식과 같은 수원 사람 박팔양은 배재고보를 졸업했고, 박승극은 중퇴한 사람이다.²⁵⁾ 송영은 “친밀히 교우하는 문인”으로 안준식을 들기도 했

22) 서울 다옥정 서울야학교는 “무산 아동과 직업 아동” 교육을 해왔는데, 확장하여 교명을 보광(普光)학교라 개칭하고 밤배움뿐이었던 것을 주야 2부로 9월 5일 제2학기 개학을 할 것이라 했다. 7명 무보수 교원 가운데서 안준식이 들었다. 『서울야학교 개명 확장 주야 이부로 내용을 확장』, 『매일신보』, 1925. 8. 29.

23) ‘동인’이라 내놓고 적지 않았지만, 피와 눈물 그리고 땀을 흘린다는 표현을 빌려 『별나라』 초기 출판에 공감하고 도와 준 사람이라 알 수 있다. 한정동·주요한·유도순·진중혁·이학인·김도인·이정호·안준식·최규선·이강흡·양재웅·연성흠·원경목·최병화·김영희·강병주·최희명·박아지·윤기항·염근수에 걸친 20명이다. 『별나라를 위한 피·눈물·땀!! 수무 방울』, 『별나라』, 1927, 6월 호, 40-43쪽.

24) 송영, 『그때의 이면사① : 신흥예술이 싹터 나올 때』, 『문학창조』, 1934, 68쪽. 『작가작품연대표』, 『삼천리』, 1937, 제9권 제1호, 241쪽.

25) 박팔양은 배재고보 제4회(1920)로 졸업했다. 박세영은 그 두 해 뒤인 제6회(1922) 졸업생이다. 진우촌은 배재학당 본과 제13회(1922) 졸업생이다. 배재고

다.²⁶⁾ 나아가 별나라사가 서울에서 이루었던 대외 행사 경우 학교 시설로는 배재고보 강당과 운동장을 되풀이 썼다.²⁷⁾ 거기에 드물게 천도교 기념관이 끼었을 따름이다. 이런 관계는 『별나라』 폐간 뒤에도 이어졌다. 안준식의 인쇄소 ‘동아사’에서 찍은 배재고보 동창회보, 곧 『1941년 배재동창회원명부』(배재동창회, 1941)가 한 물증이다. 안준식과 배재고보 사이 연고는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학연이었던 셈이다.²⁸⁾

그런데 안준식은 언제 배재고보에 입학했던 것인가? 수원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1916년과 서울 배재고보 재학이 확인되는 1924년 사이에는 8년이라는 거리가 있다. 1924년 하반기나 1925년 상반기에 학교를 중퇴했다 하더라도 언제 입학해 몇 학년 재학하다 그만 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안준식 당대에는 늦은 나이 입학이나 사정에 따라 휴학/복학이 잦았다. 그는 배재고보를 만학도로 다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배재고보 재학 사실이 왜 북한 기록에서 빠졌을까? 중퇴했던 까닭

보 제6회와 같다. 최병화는 고보 제12회(1928)다. 박승극은 1924년 배재고보를 4년만에 중퇴했다. 염근수는 1921년 양정고보 2학년 때 『동아일보』에 동시 「피꽃」을 발표한 일이 있어 양정고보를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졸업생 명부에는 없어 중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배재고보 학생 교우지 『배재』에 시 「혈화」를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별나라』 초기부터 동인으로서 안준식과 깊은 유대를 갖고 편집을 도왔다. 양정고보를 중퇴하고 배재고보에서 학업을 이은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그 또한 안준식과 같이 졸업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안준식 둘레에서 배재고보와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이는 박팔양·송영·박세영·진우촌·박승극·최병화·염근수 모두 일곱 사람이다. 『1941년 배재동창회원명부』, 배재동창회, 1941, 15쪽 : 19쪽 : 20쪽 : 50쪽. 「혈화」, 『배재』, 1928, 제11호, 72쪽. 「양정교우회원명부」, 『양정』, 1937, 제14호, 138-162쪽.

26) 「작가작품연대표」, 앞에서 든 책, 241쪽.

27) 「별나라사 주최 해방기념동요동화회, 23일 오후 1시 배재강당서, 본사 후원」, 『중앙신문』, 1945. 12. 21. 「별나라 7주년 기념 ‘동요·음악·동극의 밤’은 이리케 열었다」, 『별나라』, 1933, 9월 호, 40-43쪽.

28) 배재고보 동창회 명부는 졸업생을 잣대로 삼은 것이어서 중퇴생 안준식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과 본인이 이미 유명을 달리한 터라 성근 기록이 된 점도 있을 수 있다. 무산 계급으로서 안준식의 계급적 정체성을 뚜렷이 하려는 뜻도 작용했음 직하다.

북한 쪽 기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안준식의 출생 연도다. 이른바 출판법 위반 기소장에 따르면 출생 연도를 밝히지 않은 대신, 나이를 당 34세로 적었다.²⁹⁾ 기소된 때가 1932년 7월이니, 탄생 연도가 1899년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 쪽 기록보다 햇수로 세 해, 만으로 두 해가 앞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준식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수 있다. 굳이 연도를 밝히지 않은 기록일 뿐 아니라, 두 해나 앞섰다면 배재고보 진학 연도도 훨씬 늦어진다. 그만큼 만학의 가능성이 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생년월일을 다 밝힌 북한 쪽 기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북한 쪽과 달리 우리 쪽에서는 안준식의 삶에 관한 정보를 더 찾을 수 없을까? 요행히 짧지만 세 가지 기술이 보인다.

①안준식(운파), 별나라의 옷이요 밥이요 집이니가 더 말할 수 업고
키가 훌적 크신데다 목소리가 크셔서 미구에 그 목소리는 ‘라디오’ 모양
으로 전세계를 진동하실 것입니다 비바람 눈을 모릅쓰고 분투하시는 선
생님은 언제나 늘 별나라사에 계시고

-「별나라를 위한 피. 물 . 찜!! 수무 방울」 가운데서³⁰⁾

②운파 안준식 선생

말씀 잘하시기론 엄지 손이지요. 성량이 크기로 제일, 음악적으로 크신 게 아니라 무용적으로 크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청중은 놀날 만함이다 더구나 얽혀 안진 사람들은 눈이 공연히 둥그래집니다. 키가 크신 것은 과거의 ‘일류 스포츠맨’이란 것을 말하는 듯, 그런데도 눈물이 많은 분입니다. 별나라를 낮자 낮자 해도 못 낮는 것은 아마 이 눈물이

29) 『출판법위반 급 기타 검거에 관한 건(우리동무 사진)』, 앞에서 든 누리집.

30) 『별나라』, 1927, 6월 호, 40-43쪽.



(1930년 안준식 모습)³¹⁾

남에게 비하여 만으신 새문인가 봅니다. 선생님은 술하곤 아조 절대 대입니다. 아모 금주회에 입회하시면 툇툇이 수완을 보이실 모양, 그 『썸인 줄 아십닛가 담배도 안 잡스시니 치부술이 능한 세음, 선생님은 아든 님이 셋, 짜님이 두 분이라고 그런데 모두가 별나라보다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웃은 것은 밥 잡수실 새 콩밥이 아니면 역정을 내십니다, 대접하는 사람은 주의할 일.

-『이 해를 보내는 집필 선생의 전모』
가운데서³²⁾

③혜화동 안준식 씨 5남 병원(炳元)

-『여항(閿巷)』 가운데서³³⁾

①에서는 『별나라』와 맞물린 안준식의 절대적인 위상과 함께 몸에 관한 정보가 돋보인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②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면서 가계에 관한 정보가 더했다. 곧 ‘성량’이 ‘무용적으로’ 매우 큰 “일류 스포츠맨”이었고 다정다감하며 술 담배를 금했다는 점이다. 자녀는 아들 셋에 딸 둘인데 그들 모두 “별나라보다 동생”이라 했다. 1926년 6월 이후에 태어난 셈이다. ‘성량’이 ‘무용적으로’ 매우 컸다는 사실은 뒤에서 살피겠지만 그가 ‘동화구연가’로서 이름을 얻었던 점이 관련된다. 그리고 ‘일류 스포츠맨’이었다는 점은 이미 말했듯 배재고보 재학 때 야구선수로 활약했으며³⁴⁾ 그 출신 야구단 일원으로 활동했던 사실과 맞물린다. 야구에 관한 안목과 역량이 남달랐던 까닭에 안

31) 『집필 선생님의 면모(1)』, 『별나라』, 1930, 6월 호, 목차 뒤 2쪽.

32) 『별나라』, 1934, 송년호, 22-23쪽.

33) 『여항』, 『매일신보』, 1935. 8. 8.

34) 배재고보는 축구를 잘했으나 야구 또한 뛰어났다. 1920년 10월 4일 ‘전선야구대회’에서 “영광의 우승을 획득하여 우리 운동계에 신기록을 작하다.” 『배재학보』, 1921, 2호, 34쪽.

준식의 별나라사에서 무산 소년들이 할 수 있을 '권구(拳球)대회'를 후원 하기도 했다. 안준식은 '일류 스포츠맨'으로서 목청이 컸던, 매우 활달했던 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③에서는 아들 '병원'의 탄생을 알렸다. 1930년대 초반 안준식의 위상이 그런 사실을 지상에서 다룰 만했다는 점뿐 아니라, 그가 자녀로 아들 다섯에 딸 둘을 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노력에 따라서는 월북하지 않고 남아 있는 유족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앞에서 이제껏 안평원과 같은 사람으로 알려지거나 서울 출신으로 오해할 수 있었을, 안준식이 수원 태생 문학인임을 비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생몰 관련 정보도 더했다. 운파 안준식(1901-1951)은 경인년전쟁 비릇 뒤 서울에서 '인민군'의 출판 관계 중책을 맡아 일하다 1951년 3월 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황해도 금천에서 폭격으로 죽었다. 일찌감치 안준식의 지인이 중심이 되었을 북한 쪽의 『략력』 기록이 그 점을 뚜렷이 알려 준다. 그는 남다른 성량과 건장한 몸으로 야구에 특장이 있었던 이로, 동화구연가로서 뛰어난 활동을 할 수 있을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의 수원 고향 귀속과 함께 학력에 관한 정보도 더했다. 수원에서 보통학교를 나온 뒤 서울 배재고보에 재학했다 중퇴한 사실이 그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안준식의 삶과 문학을 살피노라면 그가 열 해 동안 한결같이 고투하면서 일구었던 별나라사와 『별나라』 출판 둘레에 고향 수원 지연과 배재고보 학연을 지닌 문인이 가장 직접적이고도 끈끈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까닭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점은 고스란히 한국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을 뒷받침하고 이끌었던 공적과 맞물린다.

3. 삶의 동력 셋

안준식은 길지 않은, 권을 겨우 넘긴 삶을 안준식·안운파·운파·구

름결³⁵⁾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살았다. ‘구름’을 앞세워 세사에 순조로움을 겨냥했는지 모른다. 그렇건만 그의 삶은 간단치가 않았다. 운동에 특장이 있었던 것과 같이 삶 또한 격동적이었다. 그런 밑자리에는 인쇄소 동아사와 『별나라』 출판을 온몸으로 밀고 나갔던 이가 겹쳤을 고통이 보인다. 왜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더는 낼 수 없게 되기 한 달 앞선 1934년 12월 호 『별나라』에는 흥미로운 문답이 오갔다. 충주의 신예 작가 한백곤이 묻고 ‘별나라사’에서 답하는 꼴이다.

안운과, 박세영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나? 한백곤 생
 (답)운과, 박세영 두 분은 인쇄업을 해서 먹고 사네 누구한테 이야기는 말어

-『기묘무궁대학』 가운데서³⁶⁾

‘인쇄업’으로 ‘먹고’ 산다 했다. 『략력』에서도 ‘인쇄 노동’자임을 밝힌 터다. 안준식은 적지 않은 기술의 생계와 ‘별나라사’ 운영을 ‘동아사’ 경영으로 버텼다. 자기 인쇄소를 갖기까지 남다른 각고와 시일이 필요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가 어느 때부터 인쇄소를 마련했는지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문헌 자료가 모자라는 상태에서 안준식의 삶과 활동을 재구성하는 일은 어렵다. 그럼에도 가늠이 가능한 삶은 셋으로 보인다. 곧 소년 활동가와 인쇄출판인 그리고 어린이문학가로서 모습이 그것이다.

1) 소년 활동의 전개

소년 활동가로서 안준식은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별나라』를 내기 앞선 초기, 『별나라』 창간 뒤 폐간까지, 을유광복까지 잠행기, 마지막 광복기 활동이 그것이다. 먼저 초기, 그가 처음 소년 활동가로 이름을

35) 목차에는 ‘안준식’이라 적고, 본문에는 ‘구름결’이라 올려, 둘 다 썼음을 알려 준다. 『어린이독본』(새벗사 엮음), 회동서관, 1928, 119쪽.

36) 『별나라』, 1935, 1·2월 합호, 51-52쪽.

낸 때는 24살 무렵인 1925년이다. 기미만세의거의 승리와 집단주의를 앞세운 사회주의 사조의 유입으로 온 나라 안에 소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런 조직이 220곳을 넘었던 때다. 그러한 증가는 왜로의 직간 접적인 방해와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로 말미암은 고초의 많은 자리는 지도자의 몫이었다. 안준식 또한 그런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25년 8월 보광학교 교원으로 일할 것이라는 기사에서 처음 이름을 보인다. “무산 아동과 직업 아동” 교육을 해오던 서울야학교가 ‘개칭’, ‘확장’해 운영하려는데 “무보수 교원”으로 안준식이 일하리라는 정보다.³⁷⁾ 그가 서울야학교에서부터 교사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학교 ‘확장’ 뒤 새로 일하기로 한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다. 다만 배재고보 재학 사실을 염두에 두면, 보광학교 확장 개칭 뒤부터 본격적인 소년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안준식은 그 뒤 동부 서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광청년회’에도 참여했다. 동광청년회를 두고 “무산 청년의 신진용”이라 썼다.³⁸⁾ 소년 활동가 안준식이 서 있었던 자리가 드러난 셈이다. 곧 경제 소속이 ‘무산 청년’에 든다는 점, 청소년 지도자 가운데서 그가 새 진용이라는 사실이다.

다음 해 안준식은 보광학교 운영 경비 일부를 달마다 도와주기로 했다.³⁹⁾ 보광학교가 확장할 때 무보수 교원으로 일하리라고 했던 안준식이 학기가 바뀌려는 때 이번에는 운영 경비를 도우기한 것이다. 그의 소속을 “인쇄회사 동아사 주인 안준식”이라 뚜렷이 썼다. 이로 미루어 보광학교 무보수 교원을 할 수 없는 처지여서 경비 보조로 도우려 했을 수 있다. 그 처지란 다름 아니라 인쇄회사 동아사 경영에 온힘을 기울이는 일이었을 것이다.

37) 「서울야학교 개명 확장 주야 이부로 내용을 확장」, 『매일신보』, 1925. 8. 25.

38) 「동광청년 조직」, 『동아일보』, 1925. 9. 22.

39) “보광학교가 신학기부터 일층 더 확장될 터이라 하는데” 그 학교에 “종래부터 많은 노력을 하던” 안준식이 “매월 10원씩 유지비로 동교에 기부하기로 승낙” 하였다. 「경비 보조」, 『시대일보』, 1926. 1. 29.

이렇듯 안준식은 1925년에 이미 새 ‘진용’, 새 얼굴을 지닌 소년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해마다 5월에 이루어지던 ‘어린이 데이’에도 참여했다. 그에 관해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자 했을 때, ‘신광(新光)소년회’를 대표해서 ‘의견’을 낸 것이다.⁴⁰⁾ 그리고 정홍교·장무쇠 등이 활동한 ‘명진소년회’에서도 창립준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렇듯 안준식 소년 활동이 지닌 새로움은 방정환과 ‘색동회’로 대표되는 비상설 중앙 기구 ‘조선소년운동협회’에 맞서 새로운 전국 단일 연합 기구로 출범했던 ‘오월회’ 중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월회에는 천도교소년회와 중앙기독교청년회 일부가 참여했음에도 개량적인 기존 ‘조선소년운동협회’와는 다른 길을 뚜렷이 했다. 곧 강령에서 “사회진화 법칙에 의하여” “시대 조류에 순응”코자 한다고 하여 사회주의 노선을 비쳤다.⁴¹⁾ 소년 활동 초기부터 안준식은 ‘무산 청년’으로서 ‘무산 소년’을 위해 활동이라는 지평을 뚜렷이 한 새 세대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인쇄소 동아사를 바탕으로 천도교계 잡지 『어린이』나 기독교계 잡지 『아이생활』과 달리 『별나라』를 내게 된 일은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었던 셈이다.

둘째, 『별나라』 창간 뒤다. 안준식은 1926년 『별나라』 창간 뒤부터 더 활발하게 활동 영역을 넓혔다. 1927년 6월에는 ‘성북동’에서 ‘성북소년회’를 만들었다. 서울 동부 ‘동광청년회’에 이어 성북 지구에도 소년회를 넓혀 나가는 맵시다.⁴²⁾ 세대와 노선 경계가 뚜렷한 안준식 두리의 활동은 자세력 결집을 바탕으로 삼았다. “아동문학 연구 쏘별회 창립”이 그 하나다. 회원 거의 모두가 초기 『별나라』 동인이거나 글쓴이로 이름을 올린 이다.⁴³⁾ 그와 함께 “소년문제 연구 단체” ‘별답회’도 만들었다. 이 두

40) 『자치의 정신』(어린이를 옹호하자 7 : 어린이데이에 대한 각 방면의 의견), 『매일신보』, 1926. 4. 11.

41) 김정희, 『한국소년운동사』, 민족문화사, 1992, 190쪽.

42) 『창립된 성북(城北) 소년』, 『매일신보』, 1927. 6. 25.

43) 회원은 유도순·한형택·김도인·진중혁·한정동·최병화·노수현·강병주·

조직을 중심으로 노선 활동뿐 아니라, 전국 활동까지 겨냥했다.⁴⁴⁾ 그리하여 ‘오월회’ 쪽과 ‘조선소년운동연합회’ 쪽 좌우 대치가 어린이날 행사를 놓고 해마다 격화, 누그러지곤 했다. ‘조선소년연합회’는 그 한 결실이었다. 그런 과정에 안준식은 오월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빠지지 않았다. 관련 행사 때마다 그는 별나라사와 ‘경성현대소년구락부’·꽃별회·별탑회를 아우른 오월회의 중심 인물로 나섰다.⁴⁵⁾

이어 오월회는 “방향 전환”을 배격하면서 1928년 조선소년연합회에서 다시 ‘경성소년연맹’으로 가치를 치고, 조선소년연합회를 조선소년총연맹으로 바꾸어 “종래의 부르조아적 완미한 교양”으로부터 “과학적 지식”, 곧 계급주의 교양으로 더욱 노선을 분명히 했다. 그 과정에서도 안준식의 위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가 ‘조선아동문예작가협회’를 따로 만든 것도 그러한 노선 격화와 관련된 일이었다.⁴⁶⁾ 그리하여 1929년 어린

주요한·양재웅·염근수다. 『아동문학연구 싯별회 창립 유지의 발기로』, 『중외일보』, 1927. 1. 17.

- 44) 『별탑회원 출발』, 『매일신보』, 1928. 8. 13.
 45) 1926년과 1927년 두 해에 걸쳐 ‘어린이날’ 행사 준비에서 그 점이 드러난다. 1927년 어린이날을 맞아 소년단체연합회의를 열었을 때 안준식은 별나라사를 대표해 참석했다. 그럼에도 대립이 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두 조직 통합을 꾀하기 위해 7월 ‘조선소년연합회’ 발기대회를 열었을 때 창립준비위원회에 서울 대표로 방정환·안준식·연성흠·정홍교·고장환·최청곡과 같은 이가 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조선소년연합회에서 10월 창립대회를 열었을 때 안준식이 사회를 맡고, 임시의장 방정환이 회의를 이끌었다. 그 자리에서 위원장 방정환 아래서 안준식은 중앙검사위원으로 뽑혔다. 『어린이날 준비로 소년단체연합회의』, 『중외일보』, 1927. 4. 10. 『소년계의 회소식 두 지도 단체가 악수』, 『매일신보』, 1927. 8. 1. 『조선소년연합회 발기대회 원만히 진척, 조선소년운동협회측과 오월회측과의 타협으로 소년운동 통일 서광』, 『중외일보』, 1927. 8. 1. 『조선소년연합회 창립회의 제1일』, 『매일신보』, 1927. 10. 18. 『조선소년연합회 발기대회에 관한 건』,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 서류 3』, 1927. 8. 3.
 46) 새로 출범한 조선소년연합회도 활동이 순조롭지 않았다. 오월회 핵심 구성원이 1928년 2월 ‘경성소년연맹’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조선소년연합회가 1928년 3월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조직을 ‘조선소년총연맹’으로 바꿀 것을 결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의 부르조아적 완미한 교양으로부터 과학적 지식” 보급과 “무산 소년 교양에 주력”하는 방향을 제발하였다. 그러자 천도교 측과 그 동안 어린이

이날 행사는 두 갈래로 나뉘어 치러질 수밖에 없었다.⁴⁷⁾ 이러한 소년 활동의 대립과 통합 모색, 그리고 다시 대립이 높아가는 과정에서 안준식은 그 ‘준비위원’이나 ‘위원’으로서 이념과 활동 자리를 뚜렷이 한 것이다.⁴⁸⁾ 그 점은 1932년 ‘어린이날 준비회에 대한 공개장’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소위 조선의 ‘어린이날’이란 것이 그 출발을 우익 민족주의자의 굴복 인종 운순 등등의 일종 동물애호 운동과 가튼 데에서 출발한 것은 여기에서 새삼스러이 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점점 양편 대립이 심화한 금일에 잇서서는 단순한 ‘애호운동’에서 일보 전진해서(6자 략) 도구가 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줄임)-

× ×

여느날 신문엔가 예년과 가튼 판에 박은 듯한 ‘준비회’ 소식과 싸라 점 더 노골화한 ‘스로강’ 기념 프로와 및 준비위원의 씨명이 려한 가운데 나의 성명이 끼여 잇섯다

물론 나에게 승낙을 구한 것은 커녕 그와 가튼 문의 통지 등의 하등의 행동도 엄시 자기네 씨리 어디서 엇더케 결의했는지도 모르게 발표하여 버리엿다

내가 어린이날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드래도 그 불법 행동에

날을 만들어 소년 활동을 이끌었던 “색동회·조선소년운동협회는 손을 뗐다. 조선소년총연맹은 지역 소년동맹의 연맹 가맹을 받아들이고 더 힘 있는 강령을 확인했다. 그리하여 소년 활동의 분열과 대립은 더해 갔다. ‘조선아동문예작가협회’에는 김영팔·양재웅·최병화·강근수가 안준식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조선아동문예작가협회 창립』 『중외일보』, 1929. 7. 6.

47) 『입박된 아동일 준비』, 『매일신보』, 1929. 4. 25.

48) 『경성소맹(京城少盟)에서 ‘어린이’날 준비』, 『중외일보』, 1930. 4. 1. 『어린이날준비위원회를 개최 부서와 규정 기타를 결정 소년총연맹에서』, 『매일신보』, 1930. 4. 4. 『“전선어린이날중앙연합 준비회” 집회 취재 상황 보고』, 『사상에 관한 정보(부분)』, 1931. 3. 19. 『금년 어린이날 기념 중앙연합 준비 임시 기관을 조직』, 『매일신보』, 1931. 3. 20. 『어린이날 기념, 준비회 임시 조직, 중앙준비기관으로써, 위원 급 부서 등 결정/시설사항 등 결정』, 『조선중앙일보』, 1932. 4. 16. 『어린이날 기념 준비 임시 조직』, 『조선중앙일보』, 1932. 4. 16.

대하여 불평이 잇겠거든 하물며 반대하는 나로서는 여간 분개했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곳 준비회로 그 불법을 청하고 그 취소 급 사고 광고를 금일 20일까지 발표해 달라고 요구하였든바 20일이 지나도록 하등의 소식도 업고 그에 대한 광고도 업섯다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준비회의 행동이냐?

-(출입)-

만천하 독자 제군과 더욱히 가튼 소년 운동권 내에 잇는 동지 제군에게 신문에 발표된 나의 성명을 보고 의혹과 오해를 품고 잇슬 것을 생 각할 쎄에 이것을 공개 아니할 수 업서서 이 일문을 초한 것이다

-『어린이날 준비회에 대한 공개장』 가운데서⁴⁹⁾

방정환이 이끌었던 진영의 ‘어린이날’ 행사의 출발을 “우익 민족주의 자의 굴복 인증 온순 등등의 일종 동물애호 운동과 가튼 데에서 출발한 것”이라 한 데서 비아냥이 드높다. 인식에서 뚜렷하게 차별을 두었다. 그들은 기념 프로그램에 승낙도 얻지 않고 준비위원으로 안준식을 올렸다. 그러니 읽는이나 “가튼 소년 운동권” “동지 제군”이 “의혹과 오해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같은 소년 운동권”이란 다름 아니라 계급주의 노선이다.

이렇듯 소년 활동에서 계급주의라는 반왜, 항왜 이념 조직과 진영의 중심 고리이자 든든한 바탕이 안준식과 별나라사였다. 그를 둘러싸고 젊은 활동가들이 오갔고, 안준식의 집과 사무실은 꾸준하게 그들이 만나는 주요 장소 가운데 하나였다.⁵⁰⁾ 그와 맞물려 안준식을 향한 감시 또한 집

49) 『조선중앙일보』, 1932. 4. 26.

50) 1927년 12월 서대문 『별나라』사 주필 안준식의 ‘집’을 지나가는 “헌병대 형사에게” 이른바 왜왕과 관련한 “불경한 언동”을 했다는 혐의로 ‘로동총동맹’ 간부 리창제가 붙잡혔다. 그에 대한 공판이 다음 해 1월과 3월에 이루어졌다. 이때 ‘사건’ 장소인 안준식의 ‘집’이란 이른바 ‘영락정 1정목’에 있었던 별나라사이자 인쇄소 동아사를 뜻한다. 이창제가 있었던 ‘로동총동맹’ 사무실은 그 가까운 이른바 ‘영락정 2정목’에 있었다. 그는 별나라사 안에 있다 그런 일을 피했다. 『불경사건 공판, 노동총동맹 이창제』, 『동아일보』, 1928. 1. 15. 『불경사건 공판』, 『동

중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1932년 그의 두리 인물들이 왜로 감시망에 옥죄여 겪은 신건설사폭거와 그를 빌미로 계급주의 노선 전체 붕괴를 뜻하는 카프 해체 수순이 이어졌다. 1932년 “적색 잠행 운동”을 한다는 혐의로 젊은이들이 경찰서에 끌려간 것⁵¹⁾이 물꼬였다. 이어 신고송이 중심이 되어 냈던 『연극운동』으로 안준식도 왜경에 ‘인치’되었다.⁵²⁾ “민족 개량주의”라는 투항주의적 간판”과 달리 계급 해방 활동이었던 까닭이다. 그런 투쟁 밑자리에 별나라사와 지역 곳곳 별나라 지분사, 그리고 안준식이 있었다.⁵³⁾

1935년 뒤로 안준식의 소년 활동은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다. 왜로가 1937년 중국대륙침략전쟁을 벌이면서 우리 땅에서 이른바 ‘국민정신총동원’을 꾀하는 과정에서 소년 활동은 더 숨 쉴 수 없었다. 어린이날 행사 또한 1937년을 마지막으로 삼았다. 안준식은 그러한 어린이날 마지막 행사까지 멀찍이 지켜보는 몸이었을 것이다. 을유광복까지 긴 잠행기가 시작된 것이다.

셋째, 을유광복 뒤 활동이다. 안준식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데는 1945년 9월 8일 한국민주당 발기인이 낸 전단이다. 여운형·안재홍이 이끈 ‘인민위원회’에 격렬하게 맞서는 자리다.⁵⁴⁾ 거기 안준식의 이름이 들렸다. 그런데 그것은 안준식의 을유광복 이전 걸음걸이로 볼 때 잘못된 일이다. 1932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민당에서 이름을 끌어댄 것이다. 그가 본격 이름을 올린 것은 광복을 맞아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국어린

아일보』, 1928. 3. 10. 게다가 “전 조선 남북 각지 어느 곳 하나” 없이 “수백 명”이 검거되기도 했던, ‘연강소년회’의 ‘공산소년비밀결사 사건’(‘노농소년위원회사건’, ‘조선빼오네르사건’)으로 ‘공판’에 넘겨진 정청산·김봉룡·박상운 등이 ‘적색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만나던 장소 가운데 하나도 안준식의 집이었다. 『중외일보』, 1931. 6. 3. 『매일신보』, 1932. 1. 20.

51) 『매일신보』, 1932. 9. 20.

52) 『연극운동사의 관계자 인치』, 『매일신보』, 1932. 12. 1.

53) 『전조선현상동요·올동대회』, 『별나라』, 1934. 4월 호, 59쪽.

54) 『한민당, 입정 외에 정권 참칭하는 단체 및 행동 배격 결의 성명서』, 『‘빠라’로 듣는 해방 직후의 목소리』, 김현식·정선태 엮음, 소명출판, 2011, 52-53쪽.

이날준비위원회' 결성에서다.⁵⁵⁾ 이어 당일 휘문중학 운동장에서 열린 서울 행사에서는 서울시어린이날준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안준식이 기념사를 했다. 연배로나 투쟁 경력으로 보나 지난 시기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소년 조직 활동에서 그가 지닌 대표성을 보여 주는 일이다.⁵⁶⁾ 그 행사를 마치고 인사차 이루어진 서울 언론사 방문 또한 그가 맡았다.⁵⁷⁾ 이어 1947년 어린이날 기념 행사 준비 때도 안준식이 이름을 올렸다. 1946년 준비위원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다 우파 소년 활동가도 여럿 이름을 올린 자리다.⁵⁸⁾

그리고 안준식은 을유광복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년 조직 활동에도 나섰다. 그리하여 1947년 1월 광복 뒤 새로운 소년 활동의 '신출발'을 위해 지도자협의회를 만들고자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는 발기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⁵⁹⁾ 또한 "민전 선거대책 위원 각위" 157명 가운데서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여성·성인기·이정구·이우적 등과 함께 안준식도 이름을 올렸다.⁶⁰⁾ 그는 이미 남로당 입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주의 계열의 행동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 비릇과 함께 10월부터 서울에서 인민군 문화선전성 제1인쇄공장의 부사장 직함으로 일할 수 있는 터무니였다. 그리고 그 길은 스스로 고향 수원과 일터 서울을 버리고 북행을 고를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 끝은 안타까운 죽음.

55) 『어린이날 행사 전국준비위원회 결성』, 『조선일보』, 1946. 3. 12.; 『소년 문제 대강연』, 『자유신문』, 1946. 5. 11.

56) 여운형·김기전·김주하·이강국·이원조 등이 축사를 이었다. 『오월 훈풍에 축복 바든 어린이날 기념행사, 7년만에 다시 차저 작일 성대 거행』, 『중앙신문』, 1946. 5. 6.

57) 『중앙신문』, 1946. 5. 9. 『한성일보』, 1946. 5. 9.

58) "조선 어린이날 전국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 안준식을 비롯 양재응·최청곡·정홍교에다 현덕·김원룡·정태병·박홍민과 같은 새 세대도 이름을 올렸다. 『소년 운동자 제2차 간담회 개최』, 『동아일보』, 1947. 2. 9.

59) 『한성일보』, 1947. 1. 29.

60) 『중외경제신문』, 1947. 2. 15.

2) 인쇄출판과 『별나라』

안준식은 사회 진출 처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쇄출판인으로 한결같았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쇄 노동’ 일을 시작했는지, 어느 때 인쇄소 동아사를 마련했는지 뚜렷하지 않다. 다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26년 1월 보광학교 확장 기사에 “인쇄회사 동아사 주인 안준식”이라 썼다.⁶¹⁾ 이미 1926년에 앞서 동아사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1916년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배재고보 재학이 확인되는 1924년 사이, 어느 때부터 ‘인쇄 노동’을 시작했으며 동아사⁶²⁾는 그 한 결실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인쇄출판인으로서 그의 됃됨이는 무엇보다 별나라사와 『별나라』 출판과 맞물려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볼 수 있는 『별나라』는 제한된다. 모두 82권 가운데 갈무리한 45권⁶³⁾을 빌려 대강을 짐작할 따름이다. 아쉬운 일이다. 안준식은 창간 처음부터 폐간까지 『별나라』 펴낸이 자리를 오롯이 지켰다. 인쇄소 동아사 찍은이는 처음 안영식(安英植)이

61) 『경비 보조』, 『시대일보』, 1926. 1. 29.

62) “자본가의 돈도 업고 그저 빈 주먹 그대로 다만 겨우겨우 그 달을 지내어 가는 조그만 인쇄소를 안준식 동무님이 가지신 그것으로 겨우 경영의 도리를 어땀다” 『별나라는 이러케 컸다-별나라6년략사』, 앞에서 든 책, 6쪽.

63) 무엇보다 검열과 탄압으로 나오지 못했거나 발매 금지를 겪은 호가 적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게다가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별나라』의 갈무리 또한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창간호 『별나라』는 아직 미발굴 상태다. 1926년 6월 1일에 나왔다는 사실도 통권 2호 발행일로 미루어 짐작한 것이다. 폐간호는 1935년 1·2월 합호, 곧 통권 80호다. 율유광복을 맞아 속간호 두 권을 더 냈으니 82권으로 그쳤다. 이들 가운데서 글쓴이는 45권을 확인했다. 37권은 미발굴 상태다. 전체 55%에 그친다. 세목은 아래와 같다. 1926년 : 7월 호, 9월 호. 1927년 : 4월 호, 5월 호, 6월 호, 7월호, 8월 호, 10월 호. 1928년 : 3월 호, 제3권 제5호. 1929년 : 5월 호, 7월 호. 1930년 : 2·3월 합호, 6월 호, 7월 호, 10월 호, 11월 호. 1931년 : 1·2월 합호, 3월 호, 4월 호, 5월 호, 6월 호, 7·8월 합호, 9월 호, 10·11월 합호, 12월 호. 1932년 : 1월 호, 2·3월 합호, 4월 호, 7월 호. 1933년 : 2월 호, 4·5월 합호, 8월 호, 제8권 제8호, 제8권 제9호, 12월 호. 1934년 : 제8권 제10호, 9월 호, 통권 78호, 통권 79호. 1935년 : 1·2월 합호. 1946년 : 속간 1호, 속간 2호. 미확인 가운데 1926년 9월 호와 1927년 6월 호는 아단문고에 간수되어 있거나 도움을 받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었다. 향렬로 보아 안준식과 형제 사이거나 친척이었을 것이다. 뒷날 잠시 최병화를 거쳐 이유기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인쇄출판인으로서 안준식의 삶을 『별나라』 발간 환경과 관련해 살피고자 한다. 『별나라』 글쓴이, 유통과 독자, 출판의 어려움, 별나라사 출판 현황, 부대사업이 그것이다.

첫째, 『별나라』 글쓴이다. 『별나라』는 초기부터 “지면의 반 이상을 ‘독자’의 글로 채우겠다는 생각⁶⁴⁾을 지녔다. 따라서 여느 어린이 매체보다 힘껏 독자 작품을 실었고, 그들이 마련한 ‘독자문단’, ‘별님들의 모임’과 같은 투고문단은 『신소년』의 것과 함께 우리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별나라』 초기 글쓴이는 ‘동인’ 중심이다. 1927년 6월 현재 『별나라』를 위해 땀과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으로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 가운데서 퍼낸이 안준식은 “별나라의 웃이요 밥이요 집”이었다.⁶⁵⁾ 그런데 다시 넉 달 뒤에 ‘별나라 동인’으로 적은 이는 모두 19명이다.⁶⁶⁾ 처음 기록에 들어 있었던 강병주·원경목·윤기향·주요한이 빠지고 박누월·방정환·송영, 세 사람이 더했다. 두 기록에 다 이름을 얹은 이는 16명⁶⁷⁾이다. 이러한 들쭉날쭉한 ‘동인’ 모습은 처음 『별나라』 동인이 이념 결집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 같은 소년 활동권이 이저런 연고로 『별나라』 발간에 찬동하고 글쓴이로 나섰던, 유연성을 지닌 까닭이었다. 그러니 ‘본사에 집필하실 선생님’은 대상과 범위는 훨씬 넓었다.⁶⁸⁾ 그 무렵 소년 활동에 나섰거나 공감했던 지도층 청년이나

64) 『투고를 환영합니다』, 『별나라』, 1926, 7월 호, 32쪽.

65) 거의 모두 서울에 머물고 있었던 이나, 전남에 있었던 박아지, 대구 최희명, 진남포 한정동과 같이 서울 바깥에서 『별나라』와 친교를 맺었던 이도 있다. 『별나라를 위한 피·물·땀!! 수무 방울』, 앞에서 든 책, 40-43쪽.

66) 『본사에 집필하실 선생님』에 이름을 올린 39명 가운데서 ‘별나라 동인’이라 별표를 해 둔 사람은 김도인·김영희·이정호·이학인·이강흡·염근수·방정환·박누월·박아지·송영·유도순·양재웅·안준식·연성흙·진중혁·한정동·최규선·최병화·최희명에 이르는 모두 19명이다.

67) 김도인·김영희·박아지·안준식·양재웅·연성흙·염근수·유도순·이강흡·이정호·이학인·진중혁·최규선·최병화·최희명·한정동.

교사, 작가 또는 연고가 닿은 사회 저명인사를 아울렀다. 그리고 『별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썼던 주요한과 같이 『별나라』에 대한 지지를 보여 준 이도 포함되었을 것이다.⁶⁹⁾ 따라서 『별나라』의 편집 방침이나 노선 변화에 따라서 글쓴이의 드나듦은 적지 않았다.

① 별나라는 것과 속이 아조 달나졌다 소년노동자 소년농민 소학생 여러분의 참된 기관으로 모양을 변하고 나왔다

그 전에는 달콤한 문예품이나 덩허 낫코 재미만 잇는 옛날 이야기나 우리들과 관계업는 욱심쟁이인 영웅 전기 가튼 것도 석거서 실어 왔지만 지금부터는 우리들의 살림사리와 쏘는 잘 살어보자는 운동과 관계가 업는 것이며는 절대로 실치를 아니하기로 하였다

-(줄임)-

정하보 강호 임은광(隱光)(임홍은) 선생들의 우리들의 화가는 별나라를 위하여 힘을 써주시고 쏘는 앞호로도 힘을 써주시게 된 것은 깃분 일이다.

-『편집후기』 가운데서⁷⁰⁾

② 여섯 해 전 “처음 나도든 날” 그때는 덮어놓고 ‘가난한 동무’의 동무가 되겠다고 소리를 쳤다. 세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엇덧튼지 가난한 동무”면은 누구든지 다 ‘동무’가 되가 되겠다고 하든 것을 버리었다.

가난하다고 다 우리의 동무가 아니다. 공장의 동무! 농촌의 동무만이 우리의 동무인 것을 알었다 쏘 그 이듬해 나이가 다섯 살이 먹든 생일

68) 강매·김기진·김동혁·김도인·김영희·이관용·이궁중·이성용·나원정·이성환·이익상·이중화·이중숙·이정호·이학인·이강흡·염근수·민태원·방정환·백성욱·백남규·박누월·박아지·신영철·송영·안재홍·윤극영·유도순·양재웅·안준식·연성흠·조동숙·진장섭·진종혁·최남선·최규선·최병화·최희명에 걸쳤다 『본사에 집필하실 선생님』, 『별나라』, 1927, 10월 호, 앞표지 속광고.

69) 주요한·김억과 같은 이도 작품을 실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손수 원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낸 시집에서 작품을 가려 재수록하는 꼴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단의 선배”가 지닌 명성을 『별나라』가 활용하고자 한 데 그친다. 『편집후기』, 『별나라』, 1927, 8월 호, 59쪽.

70) 『별나라』, 1930, 10월 호, 뒤표지 안쪽.

에는

또 나는 동무를 더 쪽쪽히 하고 심혔다

공장의 소년이라고 농촌의 소년이라고 나의 동지(동무라고 하는 것보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었다

그러면?

가장 용감한 조합소년부의 동무만이 더 우리의 동지이라는 것을 알었다 나는 이렇게 변하여 왔다

-안준식, 『단 한 곳, 단 한 가지』 가운데서⁷¹⁾

③처음부터 지금까지 별나라를 싸어 낫튼 이가 아래와 갔다

안준식 김도인 최병화 박세영 임화 송영 염근수 엄홍섭

그리고 글을 쓰는 동무님들이 작구작구 갈니여 가다가 지금갓치 우리들의 리익과 쏘는 압길만을 위하여갓치 거러가는 아저씨들과 동무들로 된 것이다

-『별나라는 이리케 컷다-별나라6년략사』 가운데서⁷²⁾

①에서는 1930년 무렵 글쓴이 변화를 엿보게 한다. ‘우리들’, 곧 노농 무산 소년의 “살님사리와 쏘는 잘 살어보자는 운동과 관계가 엮는 것”은 ‘절대로’ 신지 않기로 했고, 새로 정하보·강호·임홍은과 같은 이가 그림을 도와주기로 했다. 모두 카프 미술분과 화가다. 글쓴이 또한 그런 두리에 있었던 셈이다. ②는 『별나라』 펴낸이로서 안준식이 편집 노선의 변화를 알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1926년 창간 무렵에는 “가난한 동무”를 앞세웠지만 이념 정위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1928년 무렵에는 “가난한 동무” 가운데서도 무산 노농 소년만을 겨냥했다. 1930년부터는 “용감한 조합소년부의 동무”, 곧 계급주의 조직의 하부 세포로서 방향을 굳혔다. 그리고 1931년 현재, 그 길로 『별나라』는 더 힘차게 걸어가리라는 각오를 밝혔다. 『별나라』가 편집 노선에서 세 차례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그것이 작품 수록과 오롯이 맞물려 들지는 않았다 하

71) 『별나라』, 1931, 6월 호, 2-3쪽.

72) 『별나라』, 1931, 6월 호, 6쪽.

더라도, 『별나라』 글쓴이의 드나듦과 나란했음은 확실하다. ③은 창간 무렵부터 1933년까지 『별나라』의 ‘리익’과 ‘앞길’에 함께해 온 이라며 여덟 사람을 들었다. 『별나라』가 제국주의 왜로의 감시와 탄압을 거쳐 오는 동안 ‘진성’ 동인이었다는 뜻이다.⁷³⁾

둘째, 『별나라』 유통이다.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곧 서울 경우 서점에서 손수 살 수 있었다. 서울 바깥에서는 지분사에서 얻을 수 있었다. 지분사조차 없는 곳에서는 손수 『별나라』 본사로 주문하거나 정기 구독하는 방식이다.⁷⁴⁾ 이 가운데서 공을 많이 들인 것은 지분사였을 것이다. 평균 100군데 남짓 지분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⁵⁾ 이러한 지분사는 『별나라』 유통뿐 아니라 자지역 소년회 활동의 중심으로, 어린이 날이나 『별나라』 돌과 같은 기념일을 맞아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지역 소년 활동의 중심 거점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지분사가 되려면 일정 부수를 넘는 『별나라』를 팔 수 있어야 했다. 그 수치를 밝힌 기록은 없다. 다만 짐작은 가능하다. 곧 “지분사가 설치 아니 된 곳이라도” ‘선금으로’ 50부 이상 ‘주문’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기록이 그것이다.⁷⁶⁾ 지사나 분사 마련에 필요한 최소는 50부 남짓이었던 셈이다.⁷⁷⁾

73) 다만 『별나라』 글쓴이로 등장이 갖지 않은 임화까지 올린 것은 그 무렵 카페에서 지니고 있었던 위상과 관련된 일이라 볼 수 있다.

74) 「독자 여러분!」, 『별나라』, 1926, 7월 호, 60쪽.

75) 1930년 현재 150군데나 되는 지사와 서점으로 보내고 2000이 넘는 개인 독자에게 『별나라』를 보냈다. 1931년 6월에는 지사가 백여 군데라 했다. 1933년에도 “백여 군데의 지분사”, 그리고 “겨우 된 책을 백오십 군데나 되는 지사와 서점으로 백부 이백 부 제일 적어야 50부 식을 뭉쳐 보냅니다”고 적었다. 『별나라 출세기』, 『별나라』, 1930, 6월 호, 26쪽. 『별나라는 이러케 컸다-별나라6년략사』, 앞에서 든 책, 6쪽. 『별님의 모임』, 『별나라』, 1933, 2월 호, 6쪽.

76) 『별나라』, 1930, 7월 호, 34쪽.

77) “본사는 종래의 지분사에 대한 보신금제를 일절로 폐지하고 할인에 대하여도 지사의 충실과 거듭 독자층 확장을 위하여 좌와 여히 개정함. 1, 보신금제는 차를 폐지함 2, 지사의 활동을 일부분이라도 보조키 위하여 좌기와 여히 할인함. 가, 50부 이상 주문에 대하여 2할인이나 100부 이상 주문에 대하여 3할인. 다, 200부 이상 주문에 대하여 4할인.” 「지사 규정 일부 개정」, 『별나라』, 1932, 2·3

그렇다면 이러한 유통 방식을 빌려 『별나라』를 사서 읽은 독자는 얼마일까? 열 해에 걸쳐 나온 잡지여서 그것은 시기마다 다르고, 호수마다 다를 수 있다. 그에 관련한 꼼꼼한 통계는 없다. 다만 몇몇 기술을 빌려 『별나라』 독자를 가늠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것은 1927년 창간 1년 뒤 “1만의 노농소년소녀 독자”라는 기록이다.⁷⁸⁾ 이듬해인 1928년에는 “한 2만 명” 된다 했다.⁷⁹⁾ 2만에 이르지 못하는 뜻이다. 그리고 1931년 창간 여섯 돌을 맞을 때 독자는 “약 2만 6700여 명”⁸⁰⁾이었다. 그런데 1931년 6월 현재 통권 51호에 “지금까지 발행된 잡지 수요가 약 552000권이라 썼다. 단순 대비로 호당 10823권 어름을 냈다는 뜻이다. 따라서 2만에서 3만에 가까이 이른 독자 수는 『별나라』 지분사 회원과 등록 개인 구독자 수를 죄 묶은 것으로 봄이 옳다. 그러므로 1931년 ‘애독자’ 수로 서울 1000에다 지역 1만으로 적은 것이 『별나라』 평균 구매 독자 수에 가까운 것이라 여겨진다. 1931년 『별나라』에 나타난 각 지방 소년 계발 상황」에서 10371명에 이른 것이 그럴 듯하다. 『별나라』는 개인 구독자, 지분사 독자, 서점 구매자를 아울러 평균 1만 남짓 구매 독자를 가졌던 셈이다. 거기다 그것을 돌려 읽었을 지분사 회원까지 염두에 둔다면 3만에 이르는 독자층을 얻을 수 있다. 『별나라』 또한 평균 1만 권씩을

월 합호, 앞표지 안쪽.

78) 『별나라는 이러케 컸다-별나라6년략사』, 앞에서 든 책, 4쪽.

79) “기자 선생님 우리 별나라 애독자 총수는 얼마났가 그리고 10월부터 된다 된다 하든 독자 메-달을 언저나 됩니가. 회령 한태봉. 한 2만 명은 되지만 실상은 이보다 2만 갑절은 더 되는 셈이지요.” 『별님의 모임』, 『별나라』, 1928, 제3권 제5호, 95쪽.

80) 『별나라』 독자 수 기록은 들쭉날쭉하다. 『별나라는 이러케 컸다-별나라6년략사』는 창간 여섯 해 뒤인 1931년에 “3만의 독자와 가치”와 “독자가 약 26700여 명이나 된다”고 나란히 적었다. 크게 잡아 3만에 이른다는 뜻이겠다. 1933년에는 “별나라 애독자”가 서울에만 1천, 지역에 1만이라 했다. 창간 초기 1만 독자를 가졌다 점점 늘어나 1931년에는 3만에 가깝게 늘었던 셈이다. 『별나라는 이러케 컸다-별나라6년략사』, 앞에서 든 책, 4 : 6쪽. 『별님의 모임』, 『별나라』, 1933, 8월 호, 39쪽. 독자 투고문 안쪽이지만 “별나라 10만 독자 여러분”이라 적은 곳도 눈에 뜨인다. 『별님의 모임』, 『별나라』, 1931, 12월 호, 33쪽.

찍었을 것이다. 매우 큰 과급도와 영향력이다.

『별나라』의 유통 범위와 지역 분포는 어떨까? 이에는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별나라』는 나라 모두에 걸쳤을 뿐 아니라, 만주 중국을 거치고 일본을 지나 멀리 미국과 쿠바에까지 이르렀다. 유통 범위가 한인 어린이가 있는 곳에는 다 걸린다. 국내에서는 경기와 함남, 함북 순서로 독자수가 많았고 충청도, 그 가운데서 충북이 가장 적었다. 경기도가 2133명인데 전주어 충북은 5명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별나라』 독자 수만 드러내는 게 아니다. 『별나라』가 대표하는 사회주의, 계급주의 노선을 향한 지역적 친소의 경계를 보여 준다. 따라서 『별나라』에서도 이들 충청도를 두고, “문화발전에 잇서서도 뒤쳐러진 것을 알 수 있다. 충청남북도는 아즉 봉건 사상이 가장 강렬하여 량반이나 찻고 쟈나 한탄하는 모양 갖다”고 비꼰 것이다.⁸¹⁾

셋째, 발간의 어려움이다. 그것은 두 가지에서 말미암는다. 먼저 검열이다. 『별나라』는 출판 편집을 해서 다른 인쇄소로 넘기는 여느 잡지와 달리 “손수 ‘글’을 쓰고 쫓 모화오고 쫓 손수 인쇄를 하고 제본하고 쫓 발송을 하고 배달”까지 하는 일원 노선을 따랐다. 그리고 1주일 또는 2주일 이른바 총독부 경무국에서 검열을 받고, 인쇄에 넘겨 4-6일 동안 인쇄를 마치고 배포에 이른다.⁸²⁾ 하지만 『별나라』가 지닌 이념 성향 탓에 검열 강도는 어느 매체보다 높았을 것이다. 그에 따른 원고 압수, 출

81) ‘개인 독자 수’ 함남 210, 전남 185, 함북 160, 경남 147, 평남 121, 평북 95, 황해 15, 충남 11, 충북 5. ‘지사에 나타난 독자 수’ 함남 834, 전남 804, 함북 803, 경기 770(서울 500), 전북 464, 평북 406, 황해 360, 충북 0, 충남 60. ‘서점위탁판매소에 나타난 독자 수’ 경기 1295(내 서울 1035), 함남 425, 평남 420, 함북 170, 경남 160, 황해 120, 강원 100. 이것을 도별로 계산해 보자면 아래와 같은 정도다. 경기 2133, 함남 1469, 함북 1133, 전남 1118, 전북 633, 평북 661, 평남 611, 황해 495, 경남 488, 경북 420, 강원 292, 만주 292, 일본 210, 충남 71, 미국 25, 쿠바 15, 중국 5, 기타 300 총계 10371인. 『별나라에 나타난 각 지방 소년 계발상황』, 『별나라』, 1932, 신년 임시호, 41-42쪽.

82) 『별나라 출세기』, 『별나라』, 1930, 6월 호, 25-26쪽.

판 불허는 발간을 어렵게 만들었다. 거기다 배포 금지까지 끼어든다. 출판 불허로 적힌 경우만 하더라도 1928년에서 1934년까지 모두 19회나 보인다.⁸³⁾ 검열로 말미암은 원고 삭제 기록은 『별나라』 곳곳에서 흔하다.

①면치 못할 사정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다 원통하게 한다

-『편즙을 마치고』 가운데서⁸⁴⁾

②원고의 대부분은 사정으로 못 실니고 급하게 다시 꾸미느라고 내용은 빈약으로 일변해 버렸다

-『편집후기』 가운데서⁸⁵⁾

③이번 송년호는 발행되자마자 발매 금지가 되어 썩 미안합니다. 그럼으로 송년호를 주문하신 분에게는 부득이 1·2합호로 대송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하게 된 것을 관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⁸⁶⁾

검열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드러낸 몇 보기다. ①에서 말하는 “면치 못

83) 1928년 『조선출판경찰월보』 제3호부터 1934년 제76호까지 가운데 ‘불허가 압수 및 삭제 출판물 기사 요지’에 따른다. 『조선출판경찰월보』 제3호, 『별나라』, 제3권 제9호, 1928. 11. 29. : 제6호, 제4권 제3호, 1929. 2. 26 : 제11호, 제4권 제6호, 1929. 7. 2 : 제16호, 제5권 제2호, 1929. 12. 16 : 제20호, 제5권 제2호, 1930. 4. 7 : 제20호, 제5권 제4호, 1930. 4. 29 : 제21호, 제5권 제5호, 1930. 5. 17 : 제22호, 제5권 제6호, 1930. 6. 11 : 제28호, 제6권 제1호, 1930. 12. 20 : 제29호, 제6권 임시호, 1931. 1. 16 : 제31호, 제6권 제3호, 1931. 3. 28 : 제35호, 제6권 제6호, 1931. 7. 9 : 제40호, 제7권 제1호, 1931. 12. 23 : 제41호, 1월분, 1932 : 제45호, 5월분, 1932 : 제61호, 9월분, 1932 : 제66호, 2월분, 1933 : 제67호, 3월분, 1933 : 제76호, 12월분, 1933.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db.history.go.kr/id/had_074

84) 『별나라』, 1931, 4월 호, 57쪽.

85) 『별나라』, 1931, 10·11월 합호, 49쪽.

86) 『별나라』, 1935, 1·2월 합호, 52쪽.

할 사정”이란 ‘원통’스러운 검열이다. “원고의 대부분”을 검열로 빼앗기고 “다시 꾸미느라고” 곤욕을 치렀다는 사실을 ②는 알려 준다. ③에서는 ‘발매 금지’를 알려 준다. 독자들에게 미안하다며 ‘관노(寬怒)’를 바라는 속살에는 제국주의 왜로를 향한 ‘노(怒)’, 곧 적개심을 요구하는 별나라사의 뜻이 담겼다. 이러한 검열 탓으로 합호, 미간행, 부실 편집과 같은 것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⁸⁷⁾

발간의 다른 어려움은 편집진 구속·투옥이다. 그것은 발간을 뿌리부터 가로막는 악재였다.

①별나라도 험한 올 념름을 지나왔으나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어려 만명 독자를 위하여 글을 써 주시든 몇 분의 소식이 여지껏 업서셔 말이 다 그릇것만 별나라는 더욱 용력을 내여 나가고 있다.

-『편집후기』 가운데서⁸⁸⁾

②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안어도 여러분께서 미리 잘 아시고 계시길 줄 믿습니다 만은 참으로 말 못할 사정으로 별나라 집안이 한참 동안이나 비엿섯습니다 그래서 별나라도 나오지 못하고 기념사업도 부득이하게 되엿습니다

-『사고』 가운데서⁸⁹⁾

①은 글을 “써 주시든 몇 분의 소식이 여지껏 업서셔” 걱정이라 썼다. 별나라사 사원 김주호·정청산과 같은 이들을 구속시킨 일을 뜻한다. 그들 소식조차 들을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②는 이른바 신건설사 폭거로 카프계 인물들이 대거 검거된 뒤 『별나라』사에 붙어 닥친 재난

87) 1928년 1929년 “두 해 동안에는 다섯 번이나 잡지는 못 나오고 다섯 번이나 병신된 꼴로 나오고 몇 번이나 열녀든 사업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1930년 역시 두 호나 나오지를 못하였다.” 『별나라는 이러케 컷다-별나라6년략사』, 앞에서 든 책, 4쪽.

88) 『별나라』, 1931, 10·11월 합호, 49쪽.

89) 『별나라』, 1934, 9월 호, 앞표지 안쪽.

을 바탕으로 한 기록이다. 『별나라』가 마지막 나온 1935년을 한 해 앞둔 1934년 6월 돌을 맞이하여 “참으로 말 못할 사정으로” 편집실이 “한참 동안이나” 비었다 했다. 신건설사폭거는 그 무렵 신문 지상에 경과가 알려지고 있었던 까닭에 읽는이를 향해 “일일히 말하지 안어도”라 썼다.

『별나라』가 이렇듯 편집실·인쇄소 직원의 유고나 검거 사태를 굳이 『별나라』 지면 안에 밝히는 것은 임시호나 미간행이 길어지곤 했던 데 따른 사과와 뜻이다. 그런데 더 밑바닥에는 『별나라』가 겪고 있었던 이념 투쟁, 매체 투쟁의 강도가 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직원의 유고 사실은 1931년에서 카프 해체에 이르기 직전인 1934년까지 더 잦았다. 그러나 1931년 이전에도 드러나지 않은 갖가지 방해와 억압이 『별나라』를 뒤덮었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한 편집진, 제작진의 구속과 탄압으로 『별나라』의 재정 또한 매우 어려워졌을 것이다. 『별나라』 마지막 호를 내기 한 호 앞인 1934년 송년호에서는 『별나라』 잔금 정산을 호소하는 다급한 글을 실어 그런 사정을 암시한다.

①전선에 널여 있는 지사원 제씨에게 감사한 뜻을 포함합니다. 압호로도 끈임없는 노력을 비웁나이다.

그리고 별나라의 성장을 도우는 의미로 지대만은 좀 청산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지사원 제씨에게」⁹⁰⁾

②이번호로서 올해를 마치니, 각 지사책임자는 별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대만은 연말 안으로 청산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원고도 만 이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고」⁹¹⁾

90) 『별나라』, 1934, 송년호, 56쪽.

91) 『별나라』, 1934, 송년호, 56쪽.

흘어져 있는 ‘지사’ 책임자에게 『별나라』 값을 ‘정산’해 달라고 썼다. 같은 부탁을 다른 꼴로 같은 쪽에 두 차례나 없었다. 그만큼 별나라사 운영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원고’를 많이 보내 달라 했다. 폐간 뜻은 없었다는 뜻이다. 가팔랐던 왜로의 억압과 감시는 마침내 1935년 1·2월 합호를 끝으로 『별나라』 폐간을 불렀다. 5월 카프 해체와 『별나라』 폐간은 맞물려 있는 셈이다. 우리 계급주의 문학 노선에서 『별나라』가 지닌 상징성이 그래서 뚜렷하다. 그 가장 밑자리에서 뒷받침하고 이끌었던 이가 안준식이다. 그런 그를 두고 동인 김도인은 “백절불굴하는 정신”⁹²⁾을 가진 이라 상찬했다.

안준식은 『별나라』를 아홉 돌 버터 낸 저력을 바탕으로 어른 문학지를 내고자 했다. 그것이 『문학창조』다.⁹³⁾ 1934년 6월 10일자로 창간호를 냈다. 이른바 신건설사폭거로 계급주의 문인 지식인을 향한 구속, 회유, 탄압이 최강도로 치달았던 때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문학창조』라는 계급주의 잡지를 새로 낸 것이다.

본사에서는 7 8년간 모든 고난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성과로 새로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줄임)-

문학창조는 재래의 여러 가지 잡지에서 보든 것과 갓흔 그런 일시적 존재가 아니라 영속적으로 별나라와 갓치 약진할 것입니다

-「사고」 가운데서⁹⁴⁾

『문학창조』 창간의 뜻은 두 가지다. 곧 『별나라』를 빌려 자란 소년 문학인과 조직의 한결같은 이념 투쟁과 문학 활동을 거듭 뒷받침하겠다는

92) 김도인, 「별나라의 외우침」, 『별나라』, 1930, 6월 호, 25쪽.

93) 매호마다 『별나라』 부록으로 ‘작은 별나라’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실물은 확인되지 않는데, 『별나라』 초기에 뜻으로만 끝난 일이겠다. 「별님의 모임」, 『별나라』, 1927, 8월 호, 55쪽.

94) 「별나라 문학창조 영업국」, 『별나라』, 1934, 4월 호, 61쪽.

뜻이 하나다. 이미 『별나라』 지분사를 바탕으로 나라 곳곳에 터 붙이고 있었던 ‘동무’들의 문학열을 받아들일 이음매가 시급했던 것이다. 『별나라』를 빌려 굳힌 향유층을 힘으로 삼아 어른 문학에까지 관리 망에 넣고자 한 뜻이었다. 다음은 계급주의 문학 진영의 매체가 거듭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가운데 그것을 되살리려는, 진영 안쪽이 지녔던 강한 매체 투쟁 의욕이다. 이 점은 『문학창조』 창간호 글쓴이나 2호 예고를 살펴보면 쉽게 짐작된다.⁹⁵⁾ 이러한 『문학창조』는 자연스럽게 편집 겸 발행인으로 안준식이 이름을 올렸고, 발행소는 별나라사, 인쇄는 그가 꾸렸던 동아사였다.

『문학창조』 창간호는 창간사를 볼 수 없다. 검열로 말미암아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편집후기가 창간사를 대신해 무겁다. “작가다운 양심을 잃지 않고 참으로 진실하고 또는 위대하게 노력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이의 글만 모아 놓고자” 한다고 썼다. 그리고 “조선문학의 성장을 비로소 『문학창조』에서 보여 보겠다는 자부와 자만을” 내비쳤다. 그 ‘성장’이란 다름 아니라 계급문학 진영의 통일된 전선 구축일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광고 난에서는 이기영·권환·송영이 합저로 낸 『농민소설집』과 『카프시인집』, 『카프작가7인집』, 번역서 『어린 페-터』, 그리고 『소년소설육인집』을 올렸다. 별나라사의 것을 중심으로 1930년대 초반 계급

95) 이기영·송영·박팔양·박승극·박세영·권환·엄홍섭·적구로 이어지는 이름은 그 무렵 계급주의 문학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거의 모두 카프 쪽 사람이었다. 그들은 다시 『별나라』와 각별한 인연을 맺은 이라는 중층적 연결망을 지닌다. 소설의 박화성과 시에 김조규가 이색적일 따름이다. 소설에는 이기영·엄홍섭·이동규·박화성이 작품을 올렸고, 송순일·김남천·한설야의 것은 검열로 말미암아 “그대로 파무든” 작품이 되었다. 거기에 송영의 회고록과 입화·박승극·윤곤강의 비평이 더했다. 시에는 입화·유완희·김해강·박아지·박세영·김조규·권환이 이름을 올렸다. 김윤석과 김팔봉이 낱말로 섹스 피어 인물론과 입센론을 선봬 이채를 띤다. 그리고 ‘문학과 현실’이라는 기획 난을 마련해 이기영·송영·엄홍섭이 짧은 평문을 실었다.

주의 노선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집들이다. 이들은 별나라사나 그와 관련을 깊게 맺은 이들이 만든 출판사 이름을 달고 있다. 아울러 그들 모두 별나라사에서 팔던 책이다. 이미 글쓴이 선정이나 편집에서부터 계급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매체를 내겠다는 뜻이 뚜렷했던 셈이다. 그러나 『문학창조』는 2호로 이어지기 힘들었다.

『별나라』는 그동안 8주년 기념호와 기념사업까지 만반으로 준비하여 노코도 모도가 수포로 고라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안어도 여러분께서 미리 잘 아시고 게실 줄 맞습니다 만은 참으로 말 못할 사정으로 별나라 집안이 한참동안이나 비엿었습니다 그래서 별나라도 나오지 못하고 기념사업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문학창조도 썩 갖흔 사정으로 못 나왔섯고

-『사고』 가운데서⁹⁶⁾

『문학창조』가 이어지지 못한 사정은 『별나라』가 맞닥뜨린 사정과 같다. 다름 아니라 신건설사폭거로 계급주의 진영의 대표 문인들이 거의 모두 이른바 ‘전북경찰부’에 구속된 탓이다.⁹⁷⁾ 엄혹한 탄압이라는 출판 환경이나 필진 구속에 이르기까지 『별나라』와 『문학창조』는 같은 시련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런 점에서 『문학창조』는 비록 1호로 그쳤지만, 우리 사회주의 현실주의 문학에 있어서 마지막 불꽃을 올린 매체 가운데 하나다.

넷째, 별나라사의 인쇄출판 사업이다. 별나라사 출판부가 『별나라』를 내는 일뿐 아니라 그 일을 맡았다. 현재로서는 『별나라』가 나왔던 1926년부터 1935년까지 시기에 이른 출판 세목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⁹⁸⁾ 그

96) 『별나라』, 1934, 9월 호, 앞표지 안쪽.

97) 그러한 면모는 비록 나오지는 못했지만 2호 예고 광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 무렵 계급주의 계열의 인사들로 다채롭게 글쓴이를 넓혀 나가고자 한 것이다. 백철·유진오·김태준·박팔양·홍효민이 그들이다.

98) 거기다 별나라사 출판부에서 출판한 것과 별나라사 인쇄부에서 찍기만 한 것이 뚜렷이 나뉘지도 않는다. 퍼낸이를 별나라사나 별나라출판부라 하지 않는 것 가

것을 보이는 유일 기록이 1933년에 내놓은 『본사에서 발매하는 명저』다. 모두 11권⁹⁹⁾이 보인다. 그 가운데 ‘별나라사 발행’이라 적은 것은 『농민소설집』과 『왜?』 둘에 그친다. 『어린 페-터』 경우 발행소는 ‘유성사서점’이나 ‘동아사’에서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에도 ‘별나라사 인쇄부’가 찍은 것이 있을 것이다. 『별나라』 폐간 뒤에는 『1941년 배재동창회원 명부』 하나가 보일 따름이다. 별나라사의 인쇄출판 사업은 『별나라』 발행이 중심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것은 책이 아닌 다른 학교 교구나 사무용품에도 발을 들이고 있었다. 주문 방식이었는데¹⁰⁰⁾, 『별나라』 초기부터 이루어졌던 일이다. 그러다 1930년 따로 ‘동아보육사(東亞普育社)’를 만들어 맡겼다. “교육용품 일절, 인쇄지류 각종, 도서출판 판매”를 목표로 삼았다.¹⁰¹⁾ 별나라사의 인쇄·출판·영업 역량을 도높이고자 한 뜻이다. 1933년까지 그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출판부를 확대, 학교 비품과 문구류 인쇄 판매¹⁰²⁾ 사업은 꾸준했다. 이와 함께 별나라사는 안에 ‘별나라 대리부’를 두어¹⁰³⁾ 별나라사에서 찍거나 퍼내지 않은 책도 ‘선금’ ‘주문’ 방식으로 파는 서점 기능을 맡겼다. 지역 독자를 위한 배려였다.

다섯째, 별나라사의 부대사업이다. 별나라사는 『별나라』 출판 말고도

운데서는 별나라사 인쇄부, 곧 동아사가 찍은 문헌도 여럿 있을 것이다.

99) 이기영, 『민촌』. 박영희, 『소설평론집』. 『갑프작가7인집』(집단사). 『갑프시인집』(집단사). 청곡 율김, 『어린 페-터』. 『농민소설집』(별나라사). 『불별』(신소년사). 『소년소설육인집』(신소년사). 『소년소설집』(조선소년사). 『왜?』(별나라사 : 발매 중지), 이효석, 『노령근해』. 『별나라』, 1933, 2월 호, 목차 뒷장.

100) 『별나라』, 1927, 4월 호, 1쪽.

101) “전선학교를 망라한 일대 규모’ 영업 과목은 도서인쇄 교육도서 출판, 학교용지 각종, 서적 급 잡지류, 화양지 문방구 원고지 경전지 학용품 구비.” 『별나라』, 1930, 10월 호, 뒷표지 뒷장.

102) “각 학교의 이익을 돕기 위해 소용되는 서류를 인쇄 판매. 통신통, 학적병성적고사용지, 수업료 봉투, 출석부 용지, 성적일람표, 수업료 미수원부, 학교 일지.” 『별나라사 출판부 확대』, 『별나라』, 1933, 2월 호, 목차 뒷장.

103) 『별나라』, 1931, 제6권 제3호, 뒤표지.

해마다 오는 돌을 맞이하여 기념 행사를 벌이거나, 절기에 걸맞은 행사를 만들었다. 그를 빌려 잡지 출판에서 더 나아가 소년 활동을 부추기고 이끌었다. 그 가운데 돌맞이 ‘기념 행사’는 6월을 맞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1927년 첫 돌에는 ‘전조선소년소녀작품전람회’를 열려고 했다.¹⁰⁴⁾ 창립 네 돌인 1930년에는 “별나라창립4주년 기념사업 ‘전선소년소녀옹변대회’를 열 예정이었다.¹⁰⁵⁾ 그러나 뜻 같지 않자 범위를 좁혔다. 별나라 수원지사가 중심이 되어 ‘기남소년소녀현상옹변대회’로 치르려 했다. 그마저도 “돌연 부득이한 사정”, 곧 왜로가 집회를 막은 탓에 계획으로 그쳐야 했다.¹⁰⁶⁾

그런 가운데서 1932년 돌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쳤다. 4월 호에 『무산 아동연합대학예회 규정』을 먼저 발표했다.¹⁰⁷⁾ 그리하여 “전선야학강습소 사립학교 연합대학예회”로 행사를 마친 뒤 『별나라』 지상을 빌려 고마움을 드러냈다.¹⁰⁸⁾ 이 행사에 “수백 여 군데의 무산 아동 야학의 학생들 작품 즉 그림, 글씨, 수공품 및 문예 작품들인 벽소설, 동요, 동시, 레쁘르파주 등 수천 여 점”을 ‘전시’했다. 계급주의 진영으로서는 “온갖 합법성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균중적인 계급 문화”¹⁰⁹⁾ 활동을 벌인 성공한

104) 도서, 습자, 수공품에다 동화, 동요들을 받았다. 『별나라 1주년 기념사업』, 『별나라』, 1927, 4월 호, 1927, 목차 뒤쪽 광고.

105) 『별나라』, 1930, 6월 호, 82-83쪽.

106) “기남(畿南)소년소녀현상옹변대회를 본 지사 주최로 개최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였으나 돌연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지하게 되고 말았삼기 만은 동무들께 넓히 사고합니다 별나라 수원지사 백” 『사고』, 『별나라』, 1931, 7·8월 합호, 45쪽.

107) “주간 요, 울동, 극, 발표회-야간 아동작품 전람, 자유화, 습자, 작품, 동요” 발표. 『별나라』, 1932, 4월 호, 앞표지 안쪽.

108) 『사고』, 『별나라』, 1932, 7월 호, 뒤표지 안쪽.

109) 북한에서 냈던 『해방 전 조선의 아동문학』에서는 1932년 7주년 행사를 1933년 행사로 잘못 적었다. 그리고 별나라사 주최 ‘무산 아동 작품 전람회’는 “반인민적 반혁명적 ‘대중 계몽 운동’에 대항하여 그를 섬멸하며 동시에 진정한 계급적 대중 교양”, “혁명 사상의 배양을” 위한 투쟁 활동으로 보았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이 행사에서 서울과 가까운 지역 무산 아동 학원 50여 곳이 참가하여

본보기였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는 제국주의 왜로 쪽에서 볼 때는 거꾸로 ‘반일’ ‘용공’ 세력을 과약하는 주요 실마리기도 했다. 일곱 돌 때인 1933년에는 행사를 크게 줄여 서울 학원을 중심으로 ‘별나라 7주년’ 동요·음악·동극의 밤을 배재고보 강당에서 열었다.¹¹⁰⁾ 1934년 8주년 기념식은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이밖에도 별나라사는 다른 부대사업도 벌였다. ‘경성소년 권구(拳球)대회’를 후원한 것도 한 가지다.¹¹¹⁾ 거기다 ‘독자 위안의 밤’¹¹²⁾을 열기도 했다. 지역 지사에서는 독자를 늘이기 위해 ‘독자회(농촌소년문고운동)’ 작품 현상 응모, 응변대회, 동화동요대회와 같은 것을 마련했다. 별나라사에서 이끈 이러한 소년 모임과 학예 활동은 고스란히 나라 안 지방사 소년 활동의 본보기였다. 나아가 별나라사가 지향했던 무산 노농소년을 위한 이념 결집과 단결, 그리고 투쟁 의욕을 드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각 지방의 『별나라』 및 『신소년』의 지사들은 실제에 있어서는 맑스주의 아동문학 크류쇼크들의 역할”을 논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노동자 농민의 반애 투쟁에도 참가하였다. 곧 동맹 파업이 일어나면 “삐라도 뿌리고 기금도 모집하였고 조합원들의 비밀 회합이 있으면 ‘피케’도 썼었고 ‘레포’도”¹¹³⁾ 했다. 카프 해체가 『별나라』 폐간과 맞물려 드는 모습은 당연한 셈이다. 그리하여 1935년 1·2월 합호를 마지막으로 카프의 어린이문학 기관지였던 『별나라』는 폐간을 맞고 그 석 달 뒤 카프도 ‘해

사흘 동안 음악, 무용, 아동극 등을 공연했다고 썼다. 『해방 전 조선의 아동문학』, 앞에서 든 책, 23쪽.

110) 『별나라 7주년 기념 「동요·음악·동극의 밤」은 이러케 열었다, 『별나라』, 1933, 9월 호, 40-43쪽.

111) “잘 사는 집의 도련님”이 이쁜 야구복에다 값비싼 ‘야구화나 방망이로 야구를 하는 것과 달리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들”은 그런 것을 갖추어 할 수 없다. “맨주먹으로 방맹(뺨)을 대신해” 8월 14일부터 100여 명의 소년 선수들이 배재고보 구장에 모여 제1회 권구대회를 열었다. 『제1회 전경기권구대회』, 『별나라』, 1930, 10월 호, 14쪽.

112) 『별나라』, 1931, 제6권 제3호, 19쪽.

113) 『해방 전 조선의 아동문학』, 앞에서 든 책, 19-20쪽.

산' 수속을 마쳤다.

안준식은 『별나라』가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을유광복까지 인쇄소 동아사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1941년 배재동창회원명부』를 찾아 둔 다른 특별한 인쇄물은 보이지 않는다. 출판사 이름을 내걸고 날책을 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국시대 말기에는 모든 인쇄용 종이를 이른바 조선총독부의 관리 아래 배정을 받는 꼴이었다. 『별나라』를 냈던 이른바 '요주의 인물'이었을 그가 마땅한 출판을 바라기는 어려운 정황이었다. 그럼에도 소규모 인쇄업은 이어 나갔던 까닭에 광복을 맞자마자 이내 『별나라』 속간호와 속간 2호 두 권에다 1930년대에 냈던 주요 계급주의 출판물을 다시 찍어 낼 수 있었다. 안준식의 생계를 책임졌던 인쇄출판인으로서 삶은 꾸준하고 한결같았던 셈이다.

3) 어린이문학가의 층위 들

안준식은 외국 유학을 거쳐 언론계나 상급학교에 몸 담은 근대 초기 지식층 문학과인과 다르다. 나라 안에서 교육 제도 안팎을 드나들며 문학 사회에 나선 '무산 청년' 출신의 자생 문학인이다. 그들은 앞 세대와 달리 이념 학습으로나 실천 활동 쪽에서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문학사회 여러 곳에서 티내기가 활발했다. 안준식은 그들 가운데서도 앞자리에 든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문학가로서 또한 독특하다. 그것은 타고난 목소리나 재능에 힘입었을 동화구연가와 어린이문학 작가로서 뒤편이 어울려 지닌 데서 비롯한다. 이 둘이 얽혀 만드는 역동적인 모습이 안준식 어린이문학의 특성을 이룬다.

첫째, 동화구연가로서 안준식은 1926년 『별나라』 출범과 비슷한 시기에 이름을 냈다. 이른바 '경성도서관'에 마련된 '경성소년구락부'의 '현대소년동화대회'에 그와 염근수가 참가한 것이다.¹¹⁴⁾ 눈 여겨 볼 사실은 그 행사가 56회였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횟수를 거듭한 일이다. 따라서

114) 『현대소년동화대회』, 『동아일보』, 1926. 11. 13.

안준식의 동화구연가로서 모습은 그 앞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1925년 '보광학교'에서 무보수 교원을 맡으려 했을 무렵에 이미 남다른 재능을 드러냈을 것이다. 안준식이 소년 활동가로서 나섰던 무렵이다. 그러다 『별나라』 발행과 함께 그 유통과 맞물려 안준식의 구연동화 활동의 범위와 빈도도 늘었을 것이다.¹¹⁵⁾

1928년 군산으로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안준식은 이미 '실연으로' "정평이 있는 동화계의 명성(明星)"¹¹⁶⁾, 곧 셋별이었다. 그런데 동화구연가로서 그의 됴됨이는 다시 둘로 나뉜다. 곧 동요동화회 현장에서 하는 구연과 방송 매체를 빈 구술이 그것이다.

- ① 정기동화대회 개최, 연건동 명진소년회관 연사 안준식 장무쇠¹¹⁷⁾
- ② 「임간(林間)동화대회 취운당에서」¹¹⁸⁾
- ③ 「군산에서 정기동화대회」¹¹⁹⁾
- ④ 「별담회 주최 특별동화동요회 입장하는 이에게 추천권 주어 각등(各等)에 상품을 진정(進呈)」¹²⁰⁾,
- ⑤ 「양감동화회 성황」¹²¹⁾
- ⑥ 「수원동화대회 성료」¹²²⁾

115) 조은숙은 실국시대 동화구연이 핵심이었던 동화회의 개최 양과 그 변화를 따지면서 면서 단계를 네 매듭으로 나누었다. 1910년 무렵부터 1924년까지 왜국 어린이문학가의 피식민지 순방 동화회에 자극 받아 정기적인 동화회를 마련하기도 한 제1기, 1925년부터 1930년까지 전국 순회 대규모 동화회가 가장 활발하게 열렸던 제2기, 1931년부터 1936년까지 양적으로 줄었으며 현상동화대회가 큰 흐름이었던 제3기, 그리고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왜로에 영합한 '군국주의' 동화회가 열리기도 했던 제4기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안준식은 제2기를 대표하는 동화구연가로 시작한 셈이다. 조은숙, 「식민지 시기 '동화구연회'의 공간」,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소명출판, 2009, 273쪽.

116) 「별담회원 출발」, 『매일신보』, 1928. 8. 13.

117) 『동아일보』, 1928. 4. 8.

118) 『중외일보』, 1928. 7. 27.

119) 『중외일보』, 1928. 8. 15.

120) 『매일신보』, 1929. 2. 7.

121) 『동아일보』, 1929. 2. 21.

- ⑦ 「급고」 「급고」¹²³⁾
 ⑧ 「별나라지사 동화회」¹²⁴⁾

일간 신문이나 『별나라』에서 보이는 구연 행사를 모은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안준식이 구연했을 행사는 이보다 훨씬 많았겠다. 연승흠·장무쇠와 함께 1924년에 만들었던 명진소년회가 연 매주 토요일 동화회에서 그가 구연을 한 기록이 ①이다. ②는 가회동 ‘임간수양동화대회’에서 구연한 기록이다. 이정호·홍은성과 함께 안준식을 “동화계의 명성”이라 일컬었다. ③은 군산에서 이루어진 ‘정기동화대회’에서 그가 연사로 자리한 기사다. ④는 그가 참여했던 ‘아동문제연구단체’ 별담회에서 정초 “특별동화 순회를 시작”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동화동요대회’에 방정환·연성흠·이정호와 함께 안준식이 연사로 나섰음을 알려 준다. 그들은 이어 여러 곳으로 순회를 나갈 예정이었다. 거기서도 그는 빠지지 않았다.

⑤는 수원 양감 별나라지사에서 동화와 동요대회를 연 기록이다. 안준식은 동화, 송영과 박세영은 동요 쪽에서 초청되었다. 성황을 이루었는데, 구직회가 일하고 있었던 양감 동소리 밤배움 대화의숙(大化義塾) 학생도 함께했을 행사다. ⑥ 또한 ‘수원동화대회 성료’를 알렸다. 삼일학교 신축 강당에서 이루어졌고 안준식은 「바보 길동」을 구연했다. 양감 출신 박승극이 수원청년동맹 위원장을 맡고 있을 무렵이다. ⑦ 또한 수원과 인천에서 이루어질 동화회 행사에 안준식이 연사로 참석할 것임을 알려 준다. 마지막 ⑧은 동향 정청산이 활동하고 있었던 별나라용산지사에서 이루어진 동화회 기록이다. 안준식이 한결같이 연사 자리를 지켰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안준식은 서울 뿐 아니라, 별나라지사가 있거나

122) 『동아일보』, 1932. 8. 25.

123) 『별나라』, 1933, 9월 호, 56쪽.

124) 「21일 밤 별나라용산지사 주최 동화대회를 여는데 연사는 안준식」, 『중외일보』, 1930. 8. 20.

소년 동맹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경기도 지역까지 동화구연가로서 나섰다. 흥미로운 사실은 활동 범위가 그 앞 세대, 방정환을 비롯한 색동회 회원들과 같이 전국을 도는 걸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운영 자금뿐 아니라 집회 감시·검열이 안준식이 들어 있었던 조직, 문학인 쪽에 우심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큰 행사 마련이 어려웠고, 『별나라』나 『신소년』 지분사의 도움을 확연히 받을 장소를 중심 행사지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역외에서는 『별나라』와 지연이 가장 굳건한 수원이나 인천 쪽이 거듭 중요 행사지가 된 까닭이다.

동화구연가로서 안준식의 두 번째 모습은 방송 구술이다.

- ①『라디오 방송』, 동화 『만두 장수』¹²⁵⁾
- ②『JODK』, 동화 『어린 궁수』¹²⁶⁾
- ③『라디오 방송』, 『어린 활량』¹²⁷⁾
- ④『JODK』, 동화 『없는 ×전』¹²⁸⁾
- ⑤『라디오 순서』, 동화 『불상한 복순』¹²⁹⁾,
- ⑥『JODK』, 동화 『어리석은 길동』¹³⁰⁾
- ⑦『JODK』¹³¹⁾

①에서 ⑦은 『JODK』, 이른바 ‘경성방송국’에서 안준식의 동화 구술이 전파를 탈 것임을 알려 준다. ‘경성방송국’이 만들어진 때가 1927년 2월이다. ①은 그 해 11월에 안준식이 동화 『만두 장수』를 구술했음을 일깨운다. 방송 초기부터 그가 동화구술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다. ②에서는 1929년 동화 『어린 궁수』에 이어 『어린 활량』 구술이 보인다.

125) 『동아일보』, 1927. 11. 9

126) 『조선신문』, 1929. 5. 10.

127) 『동아일보』, 1929. 5. 10.

128) 『조선신문』, 1929. 11. 16.

129) 『중외일보』, 1930. 1. 18.

130) 『조선신문』, 1931. 6. 26.

131) 『조선신문』, 1932. 5. 10.

다. ⑤에서는 1930년 정초 동화 『불상한 복순』을 방송했고, 그것은 ⑦로 이어진다. 예보되지 않은 것까지 넣는다면 1927년 방송 초기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꾸준하게 동화구술가로서 한글 방송 활동을 거듭한 셈이다. 그런데 그가 마련했던 방송 구술 동화는 창작일 수도 있고, 이미 알려진 것일 수도 있다.¹³²⁾ 눈길을 주어야 할 것은 그 자신의 창작 동화일 경우다. 이 자리에 찾아 올린 작품들은 제목으로 보아 고스란히 안준식 창작 동화의 제목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화구연가로서 안준식의 됴됨이는 을유광복 뒤에도 이어진다. 곧 1945년 12월 배재중학교 강당에서 있을 별나라사 주최 ‘해방기념동요동화회’에서 그가 동화 구연을 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그 점을 암시한다.¹³³⁾ 이런 기록은 방송 쪽까지 포함해 꾸준히 동화구연가로서 몫에 그가 충실했음을 일깨워 준다.

둘째, 어린이문학 작가로서 됴됨이다.¹³⁴⁾ 오늘날 확인 가능한 그의 문필은 모두 61편이다. 스무 살 때인 1921년 『조선일보』 투고시 『초연(初戀)』을 처음으로 1946년 2월, 『별나라』 속간 2호에 실은 ‘별나라 독본’ 『새해』가 마지막이다. 햇수로는 스물여섯 해에 걸쳐 작품을 내놓았으니, 그 기간 활동한 문학인치고는 작품 양이 많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점은 자신이 냈던 『별나라』에 거의 모든 작품이 실렸고, 그것은 적지 않게 검열, 압수, 배포 금지에다 폐간으로 말미암아 활동의 절대량이 줄어든 일과 맞물린다. 따라서 광복기 『별나라』 속간조차 더 잊지 못했던 시기,

132) 전래 이야기, 번안이나 개작을 거친 동화가 여기에 든다.

133) 『23일 오후 1시 배재강당서, 본사 후원』, 『중앙신문』, 중앙신문사, 1945. 12. 21.

134) 안준식의 어린이문학 창작은 스스로 구연을 위해 만든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창작한 자기 작품을 구연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그들까지 안준식 문학의 총량에 넣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 예보되었던 구연동화 작품 6편도 이 자리에 포함시킨다. 『어리석은 길동』의 경우는 그 뒤 『별나라』에 연재 동화 『바보 길동』으로 확대된 것을 여겨진다. 『만두 장수』(『라디오 방송』), 『동아일보』, 1927. 11. 9. 『어린 궁수』(『JODK』), 『조선신문』, 1929. 5. 10. 『어린 활랑』(『라디오 방송』), 『동아일보』, 1929. 5. 10. 『없는 ×전』(『JODK』), 『조선신문』, 1929. 11. 16. 『불상한 복순』(『라디오 순서』), 『중외일보』, 1930. 1. 18. 『어리석은 길동』(『JODK』), 『조선신문』, 1931. 6. 26.

곧 1946년 속간 2호의 줄글 『새해』 뒤부터 1951년 숨지기 앞까지 여섯 해 동안 작품이 비는 것은 아쉽지만 이해가 가능하다. 앞으로 『별나라』의 발굴에 따라 더 많은 작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준식은 문학 초기를 시와 수필, 그리고 번역으로 시작했다. 1921년 시 『초연』뿐 아니라, 편지글 『도회에 계신 S씨에게. 관악 하에서』¹³⁵⁾, 모리스 루블란의 ‘괴기탐정소설’을 옮긴, 『513』¹³⁶⁾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다 『별나라』 창간과 아울러 낱말로 나오는 호 책머리에 ‘권두’를 실으면서 비슷한 ‘강좌’나 ‘훈화’ ‘소년 독본’과 같은 줄글을 더했다. 거기다 동화, 소년소설 발표도 꾸준하게 이었다. 동요 또한 많지 않으나 빠뜨리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재담 꼴의 우스운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화구연가로서 안준식의 면모로 보면 자연스러운 갈래 이동이다. 동화 구연 사이사이 이러한 재담을 섞었을 수도 있다. 작품 수에 견주어 안준식의 갈래 선택은 다양하다. ‘권두’가 18편, ‘훈화’ ‘수필’과 같은 줄글이 모두 13편, 이야기문학 가운데서 동화 14편, 소년소설 7편, 가락글 가운데 시 1편, 동요 5편, 그리고 번역 2편에 재담 1편이다. 우리와 달리 북한 문학에서는 그의 작품을 중요 선집에 넣어 그를 잊지 않았다. 곧 카프 시기 어린이문학을 총집성한 선집 『별나라』(1956)에서부터 시작해, 『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1)』(2005)에 이르기까지 드문드문 보이는 모습이 그것이다.¹³⁷⁾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다. 안준식이 『별나라』 말고는 『신소년』과 같은

135) 『조선일보』, 1921. 8. 20.

136) 『조선일보』, 1921. 9. 15-9. 30.

137) 북한에서 마련한 근대 어린이문학 선집 『현대조선문학선집(아동문학집) 10』(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187-196쪽)에 동화 『이사 가는 다람쥐』와 소년소설 『아버지와 딸』이 실렸다. 그리고 류희정이 엮은 『1920년대 아동문학집(1)』(『현대조선문학선집』 18,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에 『배꼽혼 얘기』를 『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1)』(문학예술출판사, 2005)이 소년소설 『아버지와 딸』을 올렸다. 그럼에도 안준식은 1960년대 뒤부터 나온 책에서는 이름이나 작품을 보기 힘들다. 잊힌 셈이다.

유사 매체에 작품을 거의 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¹³⁸⁾ 그의 어린이문학이 지닌 한 특징일 수 있는 점이다. 『별나라』나 『별나라』가 지향했던 문학 경향에 관한 일치도와 함께 자신이 책임자며 편집인이었던 『별나라』에 대한 매체 밀집도가 매우 높다. 위에 올린 거의 모든 작품은 안준식이 이끌었던 『별나라』에 실려 있다. 모두 61편 가운데서 『별나라』 바깥 매체에 발표한 것은 11편에 그친다. 절대 다수인 82%가 『별나라』 발표다. 이런 점을 소극적으로 보자면 지면을 안정적이고 항상적으로 얻기 위한 방략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작품 검열, 압수로 말미암아 청탁하거나 확보된 원고가 실리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일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매체 경영 편집 말고는 눈을 돌릴 수 있을 여유가 없었던 것도 한 까닭이겠다.

또한 안준식은 개별 작품집을 내지 않았다. 출판업을 하는 이로서는 이례적이다. 이 점은 소년 활동가와 인쇄출판인 활동을 아울러 해야 했던 까닭에 나타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거기다 동화 구연으로 작품집을 굳이 내놓아야 할 조급성이 덜했을 수 있다. 창작 작품 양이 본격 작품집으로 묶어야 할 만큼 많지 않았다는 생각도 한 몫을 했음 직하다. 그런데 을유광복 이후 안준식은 새로운 문학 환경 아래서 자신의 동화집 발간을 꾀했다. 소년소설집 『달도 운다』가 그것이다. 이것은 『별나라』를 속간하면서 “해방 후 분사 획기적 출판물 예고”로 내놓은 광고 속에 드러난다.¹³⁹⁾ 그 속에는 「달도 운다」·「광주 나물 장수」·「바보 길동」 “외

138) 61편 가운데서 『매일신보』에 1편, 『중외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 5편, 『조선일보』에 5편, 모두 11편이다.

139) 새로운 광복 환경 아래서 별나라사는 이미 내놓았던 작품집 가운데서 되적을 만하다고 여긴 것뿐 아니라 새 출판물도 기획했다. 되적은 것으로는 박세영 시집 『산제비』가 대표적이다. 1938년 ‘동아사’ 이름으로 냈던 『산제비』는 ‘별나라사출판부’ 이름으로 다시 냈다. 그와 달리 송영·박세영의 『아동극집』, 안준식의 『달도 운다』는 광복을 맞아 신간으로 기획한 책이다. 그런데 해방 속간호에 이어 두 달 뒤에 속간 제2호(1946. 2. 10)의 광고에서는 변화가 생겼다. 『농민소설집』 대신 번역서 『어찌서 가난한가』가 올랐다. 거기다 출판사 주소지는 서

수 편”을 신는다 적었다. 그런데 이 책은 실제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수원 지역문학 연구를 향하여

필명을 운과와 구름결로 썼던 안준식은 이제껏 잊혔던 어린이문학인이다. 그의 삶과 문학 자취에 관해서는 본격 논의 하나 없었다. 게다가 태생지나 생몰 연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1901년 경기도 수원이 낳은 근대 첫 어린이문학인이다. 1951년 죽을 때까지 활발한 소년 활동가며 『별나라』 발행을 이끌었던 인쇄출판인이자 현실주의 문학인으로 살다 간 이다. 이 글은 그러한 안준식을 대상으로 그의 삶과 문학 업적을 처음으로 재구성하고 풀이하고자 하는 목표로 이루어졌다. 그에 이르기 위해 논의는 안준식에 대한 작가 혼동을 바로 잡고 고향 수원에 귀속시킨 뒤, 그의 삶의 중심 활동을 구명하는, 크게 두 토막으로 나누었다. 논의를 줄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안준식은 오래도록 안평원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왔다. 2012년부터 그가 영천 문학인 안평원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태생도 확정되지 못했다. 막연히 서울 사람으로 알려질 운명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남아 있는 남북한 기록을 빌려 그가 1901년 수원에서 태어나 1951년 3월 전중기 황해도 금천에서 폭격으로 죽었음을 알았다. 그런 가운데 수원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인쇄 노동자로 일하며 배재고 보에 만학으로 공부하다 1924년 하반기 무렵 중퇴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1925년 무렵부터 인쇄소 동아사를 세우고 1926년 별나라사를 세

대문구 일정목 166으로 실국시대와 같은데 이름을 자유출판사로 바꾸었다. 이른바 미군정 아래서 별나라사를 자유출판사로 재등록한 결과라 여겨진다. 『별나라』, 1945, 해방 속간호, 뒷표지 바깥.

위 실국시대 현실주의 어린이문학 대표 매체 『별나라』를 책임지고 1935년까지 열 해 동안 펴냈다. 그리하여 안준식은 수원 지역 첫 근대 어린이문학인으로서 뿐 아니라 우리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의 출발과 성장에 꾸준한 뒷받침을 한 작가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두리는 수원 지연과 배재고보 학연이 늘 함께했다.

둘째, 선을 갓 넘긴 안준식의 삶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뉜다. 소년 활동가와 인쇄출판인, 그리고 어린이문학가다. 소년 활동가로서 안준식은 기존 색동회를 주류로 한 초기 지식인, 유학생 중심의 지도자와 달리 1925년 무렵부터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기 시작했던 새 세대, 자생적 청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서울을 텃밭으로 1930년대 초반까지 사회주의 무산 소년 활동 앞자리에서 활약했다. 인쇄출판인으로서 안준식은 1926년 창간하여 1935년까지 낸 실국시대 80권에 광복기 2권, 모두 82권을 펴낸 『별나라』 발행에서 오롯하다. 카프의 어린이문학 기관지로 나아가기도 했던 『별나라』는 왜로의 검열과 탄압 속에서 일군 우리 어린이문학의 매체 투쟁력과 결실을 아낌없이 응변하는 잡지다. 어린이문학가로서 안준식은 타고난 몸 조건을 바탕으로 명망 있는 동화구연가며 어린이문학 작가로서 남다른 활동을 벌였다. 이렇듯 세 가지 삶이 역동적으로 맞물려 든 그의 활동을 두고 지인은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백전불굴하는 정신’의 결과라 매겼다.

이 글을 빌려 잊혔던 수원 지역 근대 첫 어린이문학가 윤과 안준식의 삶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남과 북 모두에서, 잘못 알려지거나 제대로 대접 받지 못했던 그다. 이제 걸음을 떼 격이어서 기워야 할 일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수원에 남아 있을 수원 안씨 문중의 도움을 받아 5남 병원 씨를 비롯한 후손을 찾을 일이 바쁘다. 그리고 그 둘째에서 자라고 뜻을 함께 했던 수원 문학인을 찾아 연결망과 활동 지형을 꼼꼼하게 가늠할 일이다. 월북에 실패한 안준식과 달리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 문학사회에 성공적인 편입을 해 살았던 박팔양·박승극·정청산이 그들 앞자리

에 놓인다. 그 뒤를 구직회가 따른다. 이 글로 말미암아 안준식의 문학이 수원 지역문학의 전통으로 되살 뿐 아니라, 우리 근대 어린이문학사에서 수원 문학이 차지하는 무거운 자리가 깊이 있게 조명되기 바란다. 이 글은 그리로 가는 한 디딤돌을 자임한다.

(붙임) 운과 안준식 작품 족보기

1. 권두

- 「씨를 뿌리자」, 『별나라』, 1927, 4월 호.
- 「나아갑시다」, 『별나라』, 1927, 5월 호.
- 「첫 돌을 마지하면서」, 『별나라』, 1927, 6월 호.
- 「우리에게는 너름도 업다」, 『별나라』, 1927, 8월 호.
- 「우리도 일합시다」, 『별나라』, 1928, 3월 호.
- 「별나라 선언」, 『별나라』, 1928, 제3권 제5호.
- 「우리도 나아갑시다」, 『별나라』, 1929, 5월 호.
- 「5주년을 마지하면서」, 『별나라』, 1931, 5월 호.
- 「단 한 곳, 단 한 가지」, 『별나라』, 1931, 6월 호.
- 「1931년을 보내며」, 『별나라』, 1931, 12월 호.
- 「새해와 별나라의 임무」, 『별나라』, 1932, 1월 호.
- 「졸업하는 동무들에게」, 『별나라』, 1933, 4·5월 합호.
- 「너름」, 『별나라』, 1933, 8월 호.
- 「답해를 보내며」, 『별나라』, 1933, 12월 호.
- 「1934년을 마즈면서」, 『별나라』, 1934, 1월 호.
- 「‘돌상’머리에서 무엇을 먼저 집을가요?」, 『별나라』, 1934, 9월 호.
- 「이 해를 보내면서」, 『별나라』, 1934, 12월 호.
- 「조선 해방과 소년 소녀에게」, 『별나라』, 1945, 해방 속간호.

2. 강좌·훈화·독본

- 「자치의 정신」, 『매일신보』, 1926. 4. 11.
「카필드의 소녀시대」, 『별나라』, 1927. 7월 호.
「어머니날」, 『별나라』, 1931. 3월 호.
「우리들의 설날 국제소년데」, 『별나라』, 1931. 5월 호.
「『쓰비엣트 로서아』의 잇는 농촌 ‘아이들의 집」, 『별나라』, 1932. 4월 호.
「전선 무산아동 연합대학예회를 열면서-별나라 육주년 기념에 당하야」(1회), 『조선일보』, 1932. 5. 28.
「전선 무산아동 연합대학예회를 열면서-별나라 육주년 기념에 당하야」(2회), 『조선일보』, 1932. 5. 29.
「연합학예회를 맞치고-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더립」, 『별나라』, 1932. 7월 호.
「어린이날 준비회에 대한 공개장」, 『조선중앙일보』, 1932. 4. 26.
「겨울의 거리」, 『별나라』, 1933. 2월 호.
「순이야」, 『별나라』, 1933. 8월 호.
「새해」, 『별나라』, 1946. 속간 2호.

3. 수필

- 「축 창간 1주년 기념」, 『조선일보』, 1921. 5. 23.
「도회에 계신 S씨에게-관악 하에서」, 『조선일보』, 1921. 8. 20.

4. 동화

- 「영장(靈將)」, 『별나라』, 1926. 7월 호.
「이상한 돌종소리」, 『별나라』, 1926. 제1권 제7호.
「만두 장수」(「라디오 방송」), 『동아일보』, 1927. 11. 9.
「어린 궁수」(「JODK」), 『조선신문』, 1929. 5. 10.
「어린 활량」(「라디오 방송」), 『동아일보』, 1929. 5. 10.
「없는 ×전」(「JODK」), 『조선신문』, 1929. 11. 16.
「불상한 복순」(「라디오 순서」), 『중외일보』, 1930. 1. 18.
「어리석은 길동」(「JODK」), 『조선신문』, 1931. 6. 26.

- 「사자와 원숭이」, 『별나라』, 1932, 2·3월 합호.
- 「바보 길동(2)」¹⁴⁰⁾, 『별나라』, 1933, 2월 호.
- 「바보 길동」(4), 『별나라』, 1933, 4·5월 합호.
- 「이사 가는 다람쥐」(유년동화), 『별나라』, 1933, 12월 호.¹⁴¹⁾
- 「산양개」(1), 『별나라』, 1934, 1월 호.
- 「산양개」(2), 『별나라』, 1934, 2월 호.
- 「옥색 ‘호로병’」, 『별나라』, 1934, 4월 호.
- 「병아리」, 『별나라』, 1934, 10·11월 합호.

5. 소년소설

- 「달도 운다」(3), 『별나라』, 1927, 4월 호.
- 「달도 운다」(4), 『별나라』, 1927, 5월 호.
- 「달도 운다」(5), 『별나라』, 1927, 6월 호.
- 「달도 운다」, 『별나라』, 1927, 10월 호.
- 「우리 어머니는 미쳤다」, 『별나라』, 1928, 3월 호.
- 「광주 나물 장수」, 『별나라』, 1929, 2월 호.
- 「광주 나물 장수」, 『별나라』, 1929, 3월 호.
- 「광주 나물 장수」, 『별나라』, 1929, 7월 호.
- 「광주 나물 장수」, 『별나라』, 1930, 1월 호.
- 「광주 나물 장수」, 『별나라』, 1930, 2·3월 합호.
- 「호씩 선생」(2), 『별나라』, 1930, 6월 호.
- 「호씩 선생」(3), 『별나라』, 1930, 7월 호.
- 「호씩 선생」(4), 『별나라』, 1930, 10월 호.
- 「호씩 선생」(5), 『별나라』, 1931, 1·2월 합호.
- 「호씩 선생」(중), 『별나라』, 1931, 5월 호.
-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야」(1), 『별나라』, 1931, 7·8월 합호.

140) 연계한 동화나 소년소설 경우, 『별나라』 미발굴에 따라 작품 원전을 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문 확인을 거친 연계분은 다 적는 방식을 따랐다.

141) 『현대조선문학선집(아동문학집) 10』,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187-196쪽.

-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다」(2), 『별나라』, 1931, 9월 호.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다」(3), 『별나라』, 1931, 10·11월 합호.
「아버지와 쌀」, 『별나라』, 1934, 9월 호.
「도라온 아버지」, 『별나라』, 1945, 해방 속간호.

6. 시

- 「초연(初戀)」, 『조선일보』, 1921. 5. 5.

7. 동요

- 「우지 마라」, 『별나라』, 1927, 10월 호.
「배꼽흔 얘기」, 『어린이독본』(새벗사 엮음, 회동서관, 1928).
「달」, 『조선중앙일보』, 1934. 11. 14.
「톡탁」, 『조선중앙일보』, 1934. 11. 27.
「닭」, 『조선중앙일보』, 1934. 12. 4.

8. 옮김

- 모리스 루블란, 「513」, 『조선일보』, 1921. 9. 15-9.30.
유고, 「억 부정」(1), 『별나라』, 1935, 1·2월 합호.

9. 재답

- 「내가 너분지도」, 『조선중앙일보』, 1935. 5. 21.

참고문헌

1. 1차 문헌

- 『별나라』·『신소년』·『문학창조』·『배재학보』·『배재』·『양정』·『시대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중외일보』·『조선중앙일보』·『자유신문』·『한성일보』·『중외경제신문』·『조선신문』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연구센터 엮음, 『별나라를 차져간 소녀 3』, 국학자료실, 2012.
- 김현식·정선태 엮음, 『‘빠라’로 듣는 해방 직후의 목소리』, 소명출판, 2011.
- 류덕제, 『한국 현대 아동문학 비평 자료집』(1), 소명출판사, 2016.
- 류희정 엮음, 『1920년대 아동문학작품집(1)』(『현대조선문학선집』 18), 문학예술출판사, 1993.
- 류희정 엮음, 『1920년대 아동문학집(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5.
- 박승극문학전집 편집위원회 엮음, 『박승극 문학전집 1 소설』, 학민사, 2001.
- 박승극문학전집 편집위원회 엮음, 『박승극 문학전집 2 수필』, 학민사, 2011.
- 박태일 엮음, 『소년소설육인집』, 도서출판 경진, 2013.
- 새벗사 엮음, 『어린이독본』, 회동서관, 1928.
- 최시한·최배은 엮음, 『하늘은 맑건만』, 문학과지성사, 2007.
- 『1941년 배재동창회원명부』, 배재동창회, 1941.
- 『경기도 독립운동 인물발굴사업-독립운동가 발굴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2018.
- 『별나라』, 조선민주청년출판사, 1956.
- 『별나라』, 연변교육출판사, 1957.
- 『별나라』, 아동도서출판사, 1958.

『현대조선문학선집(아동문학집) 10』,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2. 2차 문헌

김봉희, 「나라잃은시기, 계급주의 아동극 운동 : 『신소년』과 『별나라』를 중심으로」, 『아동문학평론』 36권 2호, 아동문학평론사, 2011, 48-75쪽.

김정희, 『한국소년운동사』, 민족문화사, 1992.

류덕재, 「『별나라』와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의미」, 『국어교육연구』 46집, 국어교육학회, 2010, 305-334쪽.

_____, 「1930년대 계급주의 아동문학론의 전개 양상과 의미」, 『한국아동문학연구』 26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135-172쪽.

_____,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의 필명」, 『한국 현실주의 아동문학 연구』, 청동거울, 2017, 307-309쪽.

박영기, 「일제강점기 아동문예지 『별나라』 연구-송영과 임화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33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0, 143-177쪽.

박태일, 「나라잃은시대 아동잡지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37호, 한국문학회, 2004, 149-200쪽.

_____, 「1930년대 한국 계급주의 소년소설과 『소년소설육인집』」,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183-220쪽.

손증상, 「박세영의 아동극 연구 : 『별나라』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4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13-48쪽.

신현득, 「『신소년』·『별나라』 회고」, 『아동문학평론』 31-2호, 아동문학평론사, 2006, 189-200쪽.

원종찬, 「1920년대 『별나라』의 위상 : 남북한 주류의 아동문학사 인식 비판」, 『한국아동문학연구』 23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65-104쪽.

이근화, 「『별나라』 소재 문예물 연구 : 1930년대 아동문예물의 이면과

- 문학적 전략』, 『한국학연구』 제4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229-256쪽.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 정진현, 『1920년대 『별나라』 동요 연구 : 주요 문인 활동과 작품 현황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7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 105-141쪽.
- 조성운, 『박승극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6집, 광복기념관 한국광복항쟁사연구소, 2001, 315-338쪽.
-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소명출판, 2009.
- 최명표, 『한국 근대 소년문예운동사』, 도서출판 경진, 2012.
- 『경기도 독립운동 인물발굴사업=독립운동가 발굴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2018.
- 『땅은 글이 되고 물은 시가 되고』, 경기문화재단, 2006.
- 『해방 전의 조선 아동문학』, 아동도서출판사, 1956.

<Abstract>

A Study on Juvenile Writer An Jun-Sick

Park, Tae-il*

Ahn Jun-Sik(1901-1951), who wrote the name of 'cloud texture' or 'Yunpa', is the first modern juvenile literature writer of Suwon, Gyeonggi Province. This is the first reconstruction of his forgotten life, and the recognition of literature.

First, An Jun-Sik has been misguided as an An Pyung-Won who lived in Yeongcheon area for a long time. He graduated from a middle school in Suwon, worked as a print worker in Seoul, and dropped out of Baeje-gobo school as a student. In 1925, he had founded Donga-sa, a printing company, and Byeolnara-sa in 1926, published the magazine 『Byeolnara』, representing the realistic children's literature in the age of lost country. Having served as the centerpiece of the Suwon Jiyoun and the Disappearing Gobo hackyeon, he ascended to the north in March 1951 and died in Hwanghae Province. He was active in the regional network of Suwon and the Baeje-gobo school, and he died at Hwanghae-do in March 1951.

Second, Ahn Jun-Sik's life can be divided into three. As a boy activist, he was a central figure in the new generation, who, unlike the early generations of intellectuals and international students, promoted the activities of boys from 1925 to the early 1930s. As a print publisher, he is proud of his publication of 82 books from

* Kyungnam Univ.

Byeolnara. 『Byeolnara』, who played a role as a child literary bourgeoisie of KAPF, was a representative struggle medium in imperialist persecution. As a juvenile literature writer, he is a famous fairy tale and has performed a wide range of activities as a writer.

This was the first step toward the life and literature of Ahn Jun-Sik, a literary writer who forgot about this. In the future, I hope that his literary works will not only be revived as a literary tradition in the Suwon region, but will also be deserved in the modern history of children's literature.

Key Words : Ahn, Jun-Sik, 『Byeolnara』, Fairy tale, juvenile literature, Suwon Literature, Gyeonggi Literature, 『Creation of Literature』, KAPF, Writers who went to North Korea, Classist Literature.

■ 논문접수 : 2019년 2월 17일

■ 심사완료 : 2019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9년 4월 12일

